충남도정

2019년 10월15일~10월24일 제857호

www.chungnamdojung.kr 충청남도청

시각장애인용 보이스아이 QR코드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발행인** 문화체육부지사 **편집인** 공보관 **창간** 1990년 12월 15일 **발행주기** 매월 5, 15, 25일 발행 **주소**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전화** (041)635-2035 https://blog.naver.com/chungnamdojung

아프리카 돼지열병 주의사항과 예방수칙

- 야외활동 시 야생멧돼지에게 음식물을 주지 않기
- 발생국(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축산농가 방문 금지
- 입국 시 통조림, 우유, 햄, 육포 등 축산물 반입 안 하기

해양강국 염원, 하나로 모아

지난 10일 충남도청에서 '충남 해양신산업 발전전략 보고회'가 개최된 후, 해양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도민 염원을 담은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사진은 퍼포먼스에 참여한 도민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 양승조 충남도지사 모습(사진 둘째 줄 왼쪽부터 차례로).

사진/연합뉴스 제공

해양부국, 충남 바다에서 일자리 10만개 만든다

충남 해양신산업 발전전략

文대통령 10일 충남 방문 맞춰

도, '충남해양신산업 전략' 발표

해양바이오·해양치유 거점 조성

해양+산림 충남형 치유벨트 구축

가로림만 국가 해양정원 조성 등

기업 1000개·관광객 3000만명 유치

충남도가 바다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고,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한다. 도는 지난 10일 도청 본관 로비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11번째 전국경제투어 본행사로 '충남 해양신산업 발전 전략 보고회'를 개최하고, 도의 해양신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문 대통령과 양승조 충남도지사,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국회의원, 해양신산업 분야별 전문가, 어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한민국 해양신산업의 미래' 충남, 바다를 품다!"라는 슬로건 아래 충남 해양신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한 양 지사는 "충남은 국토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수도권 및 중국과도 인접해 있으며, 광활한 갯벌 등 무한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해양신산업 육성의 최적지"라며 "충남도는 서해에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고, 건강과 행복을 누리며, 풍요롭고 즐거운 '우리의 삶'을 그려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구체적으로 ▲부남호 역간척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해양치유 거점지 조성 ▲치유 및 레저관광 융·복합 ▲'해양+산림' 충남형 치유벨트 구축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해양바이오 수소에너지 산업화 ▲해양생태관광 명소화 ▲4계절 레저체험과 섬 중심 해양레저관광지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2030년까지 ▲일자리 창출 10만 개 ▲기업 육성 1000개 ▲생산 유발 25조 원 ▲관광객 연 3000만 명 등이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에서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디스플레이 강국'을 슬로건으로 문 대통령과 양 지사, 홍 경제부총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디스플레이 신규 투자 및 상생협력 협약식'이 열렸다.

이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아산캠퍼스 LCD라인을 QD-디스플레이로 전면 전환키로 하고, 2025년까지 시설투자 10조 원과 R&D 투자 3조 1000억 원 등 총 13조 1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 지사와 이동훈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세현 아산시장 등은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과 소재·부품·장비산업 기술력 강화를 위해 협력키로 약속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신규 투자 및 상생협력 협약식 후 문 대통령은 아산캠퍼스에서 서산시 해미면으로 이동해 경제인 50여 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지역 경제인들은 ▲충남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서해선 복선전철-신안산선 직결 ▲평택~오송 복복선 사업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석문산단-대산항 인입철도 건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 등 6건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간담회에 이어 충남도청으로 이동한 문 대통령와 양 지사는 도청 도지사 접견실에서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문 대통령에게 ▲부남호 역간척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 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건의했다.

●정책기획관·해양정책과 041-635-3111, 4764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묻거든 고개 들어 충남을 보라

| 도정 톺아보기

삼성 충남에 13조원 신규투자

충남도, 글로벌 해양신산업 추진

미래 신성장으로 일자리 18만개

경제전쟁에서는 자원과 기술이 풍부하고 인재도 많아야 이길 수 있다. 하지만 상상력 하나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기도 한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기술적 발전이 한계에 직면할 미래 사회에서 새로운 가치는 상상력에 의해 창출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기술만으로 한계가 있다. 상자 밖에서 생각하라. 혁신의 재료는 상상력에서 나온다.

'위대한 상상력'이 충남에서 빛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025년까지 13조1000억 원을 투자해 충남 아산에 세계 최초 '퀀텀닷(QD·양자점) 디스플레이' 양산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중국의 추격으로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QD로 '게임의 판도'를 완전히 뒤엎겠다는 전략이다.

퀀텀닷 디스플레이는 2~10nm(나노미터) 크기의 초미세 반도체 입자인 '퀀텀닷'을 소자로 활용한 첨단 디스플레이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 강국의 꿈이 펼쳐지고 있다.

퀀텀닷과 OLED를 결합한 QD-OLED는 2021년부터 매월 3만 장을 생산할 계획이다. 8만명에 이르는 고용효과도 크다. 충남은 작년 말부터 삼성의 투자 유치를 이끌기 위해 전력투구했다.

또 다른 상상력은 바다에서 펼쳐진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10일 충남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의 '전국 경제투어'에서 '해양 신산업의 중심 충청남도'를 비전을 제시했다. 서산 부남호 역간척 사업을 통해 갯벌 생태를 복원과 태안 기업도시와 서산 웰빙특구를 육성, 국내 유일 해양생물보호구역인 가로림만의 생태적 가치를 살려 국가해양정원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또 서천 장항에 '해양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당진 왜목 마리나 개발, 안면도 관광지도 개발한다. 이를 통한 '일자리 10만개·기업 육성 1000개·생산 유발 25조원·관광객 연 3000만 명 달성'이 목표다.

충남 바다에는 해양생물 다양성 세계 1위에 빛나는 해양자원이 있고, 해양바이오·해양에너지 관련 신산업 역량도 풍부하다. 세계 해양신산업 시장은 2017년 1638억 달러에서 2030년 4749억 달러로 연평균 8.5%씩 성장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해의 기적을 만들어낸 것처럼 바다에서 우리 경제의 희망을 건져달라"고 했다. 글로벌 해양부국의 꿈이 충남에서 펼쳐지는 것이다. 한계는 오직 상상력뿐이다.

/이찬선 chansun21@korea.kr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 강국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에 13조 투자

도-삼성, '투자·협력 협약' 체결

문재인 대통령도 지원 약속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속도'

삼성디스플레이가 충남도와 투자협약을 맺고, 아산에 7년 간 13조 1000억 원을 투자한다. 이번 투자는 도의 투자협약 체결액 중 사상 최대 규모로, 세계적인 '디스플레이 메카' 충남의 입지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 10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서 열린 '삼성디스플레이 신규 투자 및 상생협력 협약식'에서 이동훈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세현 아산시장과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디스플레이 강국'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날 협약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경제투어 11번째 일정으로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삼성디스플레이는 차세대 대형 디스플레이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까지 신기술 전환 생산시설에 10조 원, R&D에 3조 1000억 원 등 총 13조 1000억 원을 투자해, QD-디스플레이 사업화로 대형 LCD 시장에서 프리미엄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번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신규 재료 및 공정 인력을 중심으로 600명이 증원되고, 간접적으로는 7만 8000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와 산업부, 아산시는 원활한 투자를 위해 제도 개선 등에 적극 협력하고 지원키로 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도가 충남테크노파크에 건립 중인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에 R&D용 설비를 기증하고, 이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기술을 지원한다.

●산업육성과 041-635-3930

충청남도청 www.chungnam.go.kr

충청남도복지재단 11월 본격 가동

법인 설립 허가 등 절차 마무리
"충남형 복지 구현 거점 기대"

충남도민의 숙원인 '충청남도복지재단'이 다음 달 문을 열고 본격 가동한다. '복지수도 충남'을 뒷받침할 '충남 복지 플랫폼'이 설립 추진 9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도는 지난달 26일 복지부로부터 충남복지재단 설립 허가 통보를 받고, 직원 채용 및 창립 이사회 등 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마무리했다. 출범식은 내달 20일경으로 예정됐다.

충남복지재단은 저출산고령화 시대 급격한 복지 환경에 대응하고, 전문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영리 기관이다. 2010년 10월 기본계획 수립 후 설립을 본격 추진해 민선7기 출범 이후인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 심의에서 경제적 타당성 등을 인정받으며 본궤도에 올랐다.

도는 지난 2월 조례를 제정한 뒤 3월 예산을 확보했으며, 6월에는 정관을 제정하고, 임원 공모 및 임명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달 20일에는 창립 이사회를 개최하고, 초대 이사장으로 변평섭 전 세종시 정무부시장을 선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제규정을 심의하고, 올해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 등을 심의했다. 이달 중에는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고일환 충남복지재단 초대 대표이사가 성과 계약을 체결하고, 도 공무원 4명도 파견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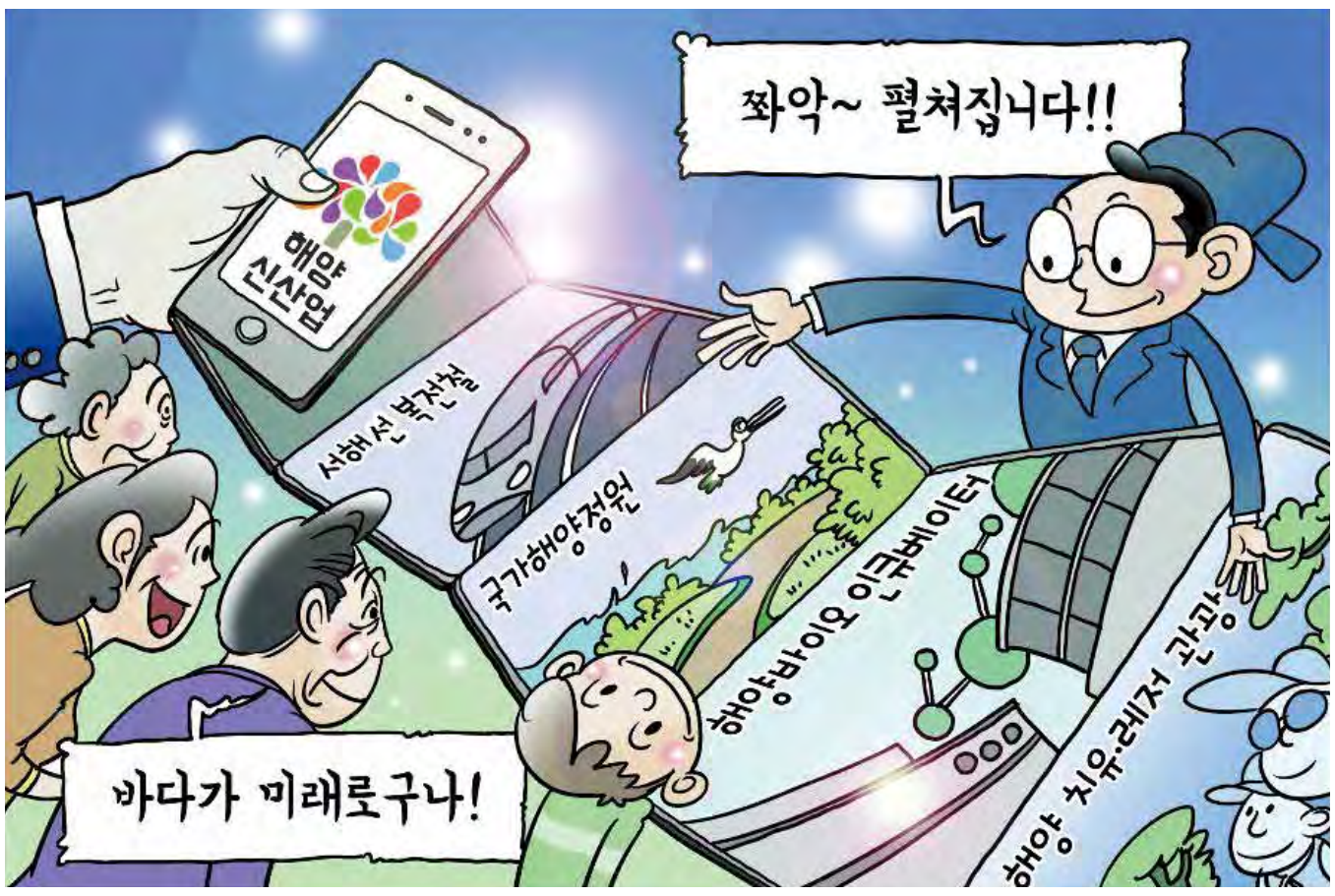
충남복지재단 사무실은 내포신도시 전문건설공제조합 건물 내에 마련했다. 직원은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채용 예정인원 19명 중 14명을 우선 선발, 이달 중 근로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충남복지재단 주요 사업은 ▲충남형 복지 구현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농어촌 중심) ▲지역 복지 연구·개발 및 현장 정책 지원 ▲위기 등 고 난이도 사례 컨설팅 및 솔루션 운영 등이다. 또 ▲사회복지 서비스 품질 관리 및 컨설팅 지원 ▲복지 자원의 효율적 관리·배분을 위한 나눔네트워크 구축 ▲충남 사회서비스 지원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사회복지과 041-635-4241

도정만평

설인호



농산물 잔류농약 걱정 마세요

논산시 잔류농약 검사시스템
도민 체감 혁신사례 1위 쾌거

충남도는 지난 8일 오후 도청 대회의실에서 '2019년 충청남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진대회에서는 1차 심사를 통해 선정한 10건에 대해 현장 발표 점수와 사전 도민 온라인 투표 결과를 50%씩 각각 반영·합산해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1위를 차지한 논산시의 '잔류농약 검사 시스템 구축을 통한 농산물 안전성 확보'는 농산물 출하 전 잔류농약 사전 검사로 부적합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 차단하고 안전한 농산물 유통기반을 조성하는 사례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어 ▲2위 서산시 '민원접수 프로세스의 변화, 전국 최고 페이스북 민원창구 온통서산' ▲3위 도 토지관리과 '재난현장의 드론영상 생중계로 효율적인 대응체계 마련' ▲4위 천안시 '천안시 장애인 편의시설 커뮤니티 매핑 앱 천안애(愛)놀자 운영' ▲5위 도 농업기술원 '대한민국 최초 7월 수확 가능한 벼 신품종 빠르미 개발' 등의 순으로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이 자리에서 김용찬 행정부지사는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위해 필요한 것은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이라며, "앞으로도 도와 시·군이 함께 다양한 플랫폼과 첨단기술을 활용해 도민이 원하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번 혁신사례로 선정된 우수사례를 상장과 포상금을 수여하고,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도 대표 사례로 추천할 계획이다.

●정책기획관 041-635-2116

매립지 관할권 회복‥목소리 모아
2일 서울서 소송대리인 간담회

충남도는 지난 2일 서울 법무법인 태평양 회의실에서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대리인 간담회를 열고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도와 당진시 담당 공무원, 도의원, 당진대책위원회, 소송대리인 등 14명이 참여한 가운데 연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말 개최한 매립지 회복방안 토론회의 연장선으로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치권 존재 및 침해사실 입증 ▲사실관계 오류 지적 등 보충서면 작성 시 부각할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또 당진대책위 김종식 공동위원장과 안장헌 도의원이 참석해 이번 사건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소송대리인단에게 직접 전달하고, 최선의 대응을 당부했다.

아울러 항만 분야 전문가 이병성 법률 전문위원의 당진·평택항 항만 운영 및 조성 과정 전반에 대한 자문 내용과 김후각 법률위원의 지방자치법 매립지 관련 조항의 절차적·실체적 문제점에 대한 현지 실정이 반영된 현장감 있는 의견도 전달했다.

●자치행정과 041-635-3607

임신부 건강 함께 지켜요

내년 4월까지 전국 어디서든
산모수첩으로 '독감 무료접종'

충남도는 지난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도 문예회관에서 임신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임신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사업 활성화를 위한 이번 캠페인은 임신부 및 신혼부부에게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알리고, 올바른 지식을 전달코자 감염병관리지원단과 함께 마련한 자리다.

임신부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시 폐렴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높고 사산·조산, 저체중아 출산 등 위험이 커 예방이 중요하다. 특히 임신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면 태아에게 항체가 전달돼 감염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출생 신생아의 인플루엔자 예방효과를 위해 임신부에게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예방접종을 우선 권고하고 있다. 부작용 등에 대한 염려로 예방접종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미국·영국·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임신부 대상 인플루엔자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예방접종을 원하는 임신부는 이달 15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상관없이 지정 의료기관(도내 1406개소, 전국 2만 420여 개소) 및 보건소를 방문해 산모수첩을 제시하면 된다.

접종 시 본인의 건강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예진표 작성 후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고, 예방접종 후 20~30분 간 이상반응이 있는지 살펴본 후 귀가하는 것을 권장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예방접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접종률을 향상해 임신부 및 태아, 출생 후 6개월 미만 영아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정책과 041-635-4317

마을의 액운을 먼 곳으로 보내다

도서(島嶼)지역
사람들의 삶과 문화
⑩퇴송배

외연도 당제는 여러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데, 그 과정마다 전통문화의 상징요소가 녹아 있다. 당주 일행은 당산에서 제를 모시고 풍물을 울리며 마을로 내려온다. 하산하면서도 팽나무·바위·등장마당 등을 다니며 각각 제를 지낸다.

마지막으로 바닷가 마을회관 앞의 제방에서 용왕제를 지낸다. 예전에 이곳은 넓게 백사장이 펼쳐져 있었다. 당주는 집에서 준비한 제물을 가져와서 여러 개의 상을 붙여 놓고 '칠당'을 겹당으로 14몫으로 나누어 차린다. 풍물패가 흥겹게 풍물을 울리는 동안 당주는 14몫에 각기 술을 한 잔씩 올리고 재배(再拜)한다.

이윽고 당주 일행과 풍물패는 배에 동승하며 바다로 간다. 풍물패는 배 위에서 풍장을 울리며 흥을 돋운다. 배가 마을 끝의 봉화산을 벗어나면 배를 멈추고 제물을 차린다. 당주집에서 새로 준비해온 시루떡, 생미, 불받이쌀, 메 3그릇, 김, 쇠고기, 세 가지 나물, 간, 산적, 정화수 등을 배의 한판에 진설한다. 잠시 장배의 엔진을 끄면 풍물도 소리를 멈춘다. 당주가 나서서 술 석 잔을 올리고 재배한다. 그런 후 당주와 안화장이 백지에 메와 나물을 조금씩 싸서 주먹밥처럼 둥글게 뭉친 '짐'을 3개 만든다. 장배의 뱃머리와 좌우에 서서 각기 한 개씩을 바다로 던진다. 그런 후 불받이쌀을 한 주먹 들고 배의 사방에 쌀을 세 번씩 뿌린다.

이렇게 한 후 당주와 안화장은 미리 제작해 둔 퇴송배에 제물을 조금씩 담는다. 잡귀들의 먹거리인 셈이다.

그리고 바다에 띄워 마을에 깃든 액운과 잡귀를 멀리 퇴송한다. 퇴송배는 볏짚 등으로 만들었으나, 이즈음 볏짚을 구하기 어려워 나무판자 아니면 스티로폼 같은 것으로 간편하게 만든다. 이 배가 멀리 떠나가야 한 해의 모든 액을 추방한다고 믿는다. 배가 점점 멀어질 때까지 한동안 떠나가는 배를 바라보며 각자 고사소리를 곁들이다. 그런 후 다시 마을로 돌아온다.

퇴송배에는 모든 제의 절차가 끝나고 마을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나쁜 액운과 잡귀를 실어 보내고자 했던 섬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용해되어 있다.

/민정희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연구기획부장

보령 외연도에서 당제 후 퇴송배를 띄워 보내고 있다.

더 행복한 충남 위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하고 활동 편의 늘린다

충남도가 교통약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활동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지난 7일 도청소재지인 내포신도시 내에 교통약자의 이동권 향상을 위한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개소한 한편, 천안 나사렛대에서는 도내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충청남도보조기센터의 문을 연 것. 광역이동지원센터는 기존에 각 시·군별로 한정적으로 운영하던 특별교통수단의 이동 범위를 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플랫폼 역할을 제공하며, 보조기기센터는 보조기기 전달 체계의 구심점으로 보조기기의 활용을 촉진하고 효율적 서비스 제공을 전담하게 된다. 도민 한 사람이라도 '더 편리하고 더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충남도의 사회적 약자 지원제도를 살펴보자.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

도내 교통약자 63만여 명
부여·서천·청양은 전체 40% ↑
교통약자 오랜 숙원 결실

충남 도내 교통약자는 2017년 기준 총 63만 7592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30%에 달한다. 교통약자에는 장애인, 고령자뿐만 아니라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 동반자 등이 포함되며 도내에서는 고령자가 36만여 명으로 전체 교통약자의 절만을 차지한다.

지역별로는 서천이 전체 인구 대비 44.2%로 교통약자의 수가 가장 많고, 청양 41.0%, 부여 40.5%, 금산 38.0%, 예산 37.6% 등의 순으로 뒤를 잇는다. 이처럼 교통약자는 고령자가 많은 지역과 상대적으로 도내에서도 교통 인프라가 낙후된 지역에 집중돼 있는 셈이다.

특별교통수단의 이동범위 광역화는 교통약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만큼, 이번 광역이동지원센터 개소는 도민 누구나 차별 없이 이동권을 누리는 '더 행복한 충남'을 향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그간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제약이 의해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한 예로, 천안에 거주 중인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해 충남도청을 방문하기 위해선 천안→아산→예산 등 3번 이상 장애인콜택시를 갈아타야 했다. 한정된 시·군 재원으로만 운영하다 보니 이용대상자, 운행시간, 이용요금 등 기준이 지자체별로 달랐기 때문이다.

이번 광역이동지원센터 개소를 계기로 도 차원의 배차 관제시스템 구축을 통해 실시간 운행상황을 관리하고 이용요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별교통수단 이용의 편의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센터에서는 도내 특별교통수단 배치 관리 등 이동 지원 업무와 함께 안내 및 상담 등의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광역이동지원센터 개소로 충남의 교통약자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고,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배차운영 등 효과적인 교통약자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를 놓게 됐다"며, "교통약자가 더 자유로운 이동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여기서 더 나아가 바우처택시나 임차택시를 도입·활용해 교통수단과 이용자 장애유형에 맞는 맞춤형 교통정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교통정책과 041-635-2842

충청남도 교통약자 현황 (2017년기준)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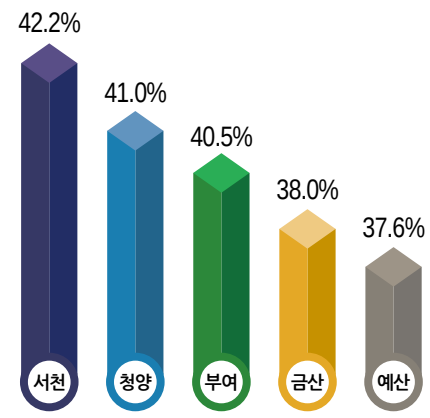
구분	총인구	교통약자					
		소계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 동반자
인구	2,116,770	637,592	65,068	362,946	15,087	102,946	90,932
인구대비	100.0	30.1	3.1	17.1	0.7	4.9	4.3
교통약자	-	100.0	10.2	57.0	2.4	16.2	14.3

* 임산부는 2017년 충청남도 출생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함

장애유형별 보조기기 지원 품목

장애유형	보조기기	대상
지체, 뇌병변, 심장장애 (1~3급) 2품목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스스로 자세를 바꾸지 못하고 장시간 앉아 있는 사람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지체, 뇌병변 장애 (1~3급) 6품목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손의 근력이나 관절가동 범위 및 쥐기 능력이 떨어져 일반 도구로는 식사가 어려운 사람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머그컵,유리컵 및 받침접시	
	접시 및 그릇	
	음식 보호대	
	기립훈련기	혼자 선 자세 유지가 어려운 사람
지체, 뇌병변 장애 (등급 무관) 2품목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균형 문제 등으로 혼자 걷기가 어려운 사람
	목욕의자	목욕·샤워 시 자세 유지가 어려운 사람
시각장애 (등급 무관) 5품목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	소리를 통해 정보 인지가 가능한 사람
	음성시계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사물 및 인쇄물의 배율, 색상, 밝기 등을 조절하면 정보 인지가 가능한 사람
청각장애 (등급 무관) 3품목	진동시계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사람
	헤드폰(청취증폭기)	
	시각신호 표시기	빛(시각) 또는 진동(촉각)을 통한 정보 인지가 가능한 사람

충청남도 시·군별 인구대비 교통약자 비중 (2017년기준)



■충청남도보조기기지원센터

보조기기 지원·관리체계 구축
지체·뇌병변, 시·청각장애인 대상
일상생활 및 정보 인지 개선 목적

지난 7일, 천안 나사렛대학교 믿음관 내에 문을 연 보조기기지원센터는 장애인과 노인 등의 활동제약을 최소화하고, 완전한 사회참여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문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등록 장애인은 13만 1910명으로, 이 중 보조기기가 필요한 주요 지원 대상 수급자는 약 1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기기지원센터는 이들을 위해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과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전문적인 보조기기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연계와 민간자원 발굴을 통해 보조기기 이용자들을 지원한다.

수혜대상 및 지원 품목은 지체·뇌병변장애의 경우 1~3급 대상 8품목과 등급과 무관하게 지원되는 2품목 등 총 10품목이며, 시·청각장애는 등급과 관계없이 각각 5품목과 3품목이 지원된다.

구체적으로 지체·뇌병변장애 1~3급 대상자에겐 욕창예방용 방석,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식사도구류와 음식보호대, 기립훈련기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등급과 무관하게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와 목욕의자가 지원된다.

시각장애인에겐 음성유도장치와 음성시계, 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영상확대 비디오를 지원하며,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진동시계와 청취증폭 헤드폰, 시각신호표시기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보조기기센터는 콜센터를 운영해 보조기기 수요자들에 공적급여, 민간자원 등을 활용한 전반적 정보를 제공하고,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문인력 교육을 실시해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수요자에게 최적의 보조기기를 제공하기 위해 ▲상담 및 평가 ▲적용 및 평가 ▲사례회의를 통한 최적의 보조기기 선정 ▲지원될 보조기기 확보방안 마련 ▲공적급여 등 확보방안 소개 및 개조제작 지원 ▲보조기기 사용교육 등의 절차를 거친다.

충청남도보조기기센터는 오는 2022년 9월 30일까지 나사렛대학교가 3년간 위탁 운영한다.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한 나사렛대학교는 재활치료학부, 휴먼재활학부, 사회복지학부, 특수교육학부, 보건의료학부 등 재활 특화 학부를 두고 있어 보조기기센터 운영에 적합한 인프라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정구 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은 "충청남도보조기기센터가 장애인과 노인 등 보조기기 사용자들의 더 나은 삶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복지과 041-635-2634

/손유진 syj0319@korea.kr

충남혁신도시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 성명서

문재인 대통령은 충남혁신도시 지정을 약속해야 한다

충남도의 핵심현안인 충남혁신도시 지정이 전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지만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정부도 추진력을 상실한채 거의 손을 놓고 있다.

충남혁신도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5대 국정 목표의 하나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의 핵심축이며,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인 충남을 환황해권 중심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의 첫 출발이다.

현 정부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을 국가균형발전 비전으로 세우고 혁신도시 시즌2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건설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참여정부의 국정 과제였으며, 국민적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2019년 9월 말 현재,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총 인구수(51,849,253)중, 수도권 인구는 49.96%(25,904,421)에 이르고 있다.

매월 '일만' 명 이상의 증가 추세에 비춰봤을 때, 금년 중에 수도권이 전 인구의 과반을 넘는 초유의 상황이 전개될 것임은 자명하다.

이는 대한민국이 경제, 문화 등 사회전반의 수도권 집중 강화를 넘어, 정치적으로 수도권 독재가 가능한 소위 '수도권공화국'에 진입한다는 의미에 다름아니다.

따라서 수도권에 잔류한 공공기관의 이전 등,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제2의 혁신도시 정책이 절실하고, 형평성. 필요성 및 당위성으로도 그 첫 대상지가 '충남'이어야 함은 분명한 사실이다.

만약 다른 지역 눈치 보기식으로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미룬다면 국가적 책임을 방기 하는 것이다.

충남혁신도시는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적 주장이 아니며 정부의 혁신도시와 충남도의 도청이전 정책을 결합하여 국가 균형발전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으며 서해안 혁신 거점으로 국가 기간산업의 개편, 국토 발전축을 경부축 중심에서 동서축으로 변경하는 측면에서도 가장 적정한 지역 정책이다.

충남도민들은 그동안 많은 손해를 감내하면서까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선봉적 역할을 해 왔다.

행정복합도시인 세종시 특별자치시를 수립하는데 차가운 거리에 서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금싸라기 같은 연기군 전체를 비롯해 공주시의 3개면 21개 마을을 내주었고 이로인해 14만명의 인구가 빠져 나가기도 했다.

또한 지역 총생산에서도 25조2천억원이나 감소했으며 그동안 혁신도시들이 가졌던 인재 채용 등 각종 혜택에도 배제돼 지리적, 인적, 경제적, 문화적 손해들은 그냥 충남도민들의 몫일 뿐이었다.

이제 충남도민들은 더이상 차별과 불균형을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이를위해 100만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226개 도내 시민, 사회단체들이 "충남혁신도시유치범도민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충남혁신도시 유치를 위해 모든 힘을 모으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충남도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하여 충남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밝혀야 한다.

만약 이번에도 충남혁신도시에 대한 명확한 답변 없이 도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우리 220만 충남도민들은 신뢰를 잃어버린 중앙 정부를 상대로 모든 수단을 가리지 않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는 국가 비전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필수 조건이다.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충남도민들에게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

2019년 10월 7일

충남혁신도시유치범도민추진위원회

충청남도청 www.chungnam.go.kr

국산 맛밤·양갱으로 가공업계 1인자 '우뚝'

이제는 농촌융복합산업이다
- 부여 밤뜨래영농조합법인

무첨가 국산밤으로 만든 건강간식
홈쇼핑, 마트 등 판로 다각화 성공
"1인 홈베이커리 시장 공략할 것"

강신황 대표이사가 자사 제품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밤뜨래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강신황, 이하 밤뜨래)은 지역 특산물인 밤으로 농산물가공식품 시장에서 이른바 대박 신화를 일궈낸 농촌융복합산업체다.

밤뜨래의 대표 상품은 맛밤과 양갱. 다양한 밤 관련 가공상품으로 지난해 거둬들인 매출액만 50억원에 이른다. 밤뜨래는 이전까지 대기업이 중국산 수입밤으로 독점했던 밤 가공식품 시장에 국산밤이라는 타이틀로 도전장을 던졌다.

차재흥 밤뜨래 이사는 "맛밤은 밤을 어떻게 하면 편하고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하는 고민에서 나온 상품"이라면서 "지금까지 국내에서 판매되던 맛밤은 모두 중국산 밤으로 만드는 것을 보고, 전국 최초로 국산 맛밤을 만들게 됐다"고 계기를 설명했다.

밤뜨래 맛밤은 모두 조합원들로부터 수매한 부여 밤으로 만들어진다. 우리나라 최대 밤 생산지인 부여는 산이 완만하고 기후가 온화해 예부터 밤의 품질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일까. 부여 밤으로 만든 밤뜨래 맛밤은 별도의 가미 없이도 달콤함이 진해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밤을 제외한 일체의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데다 질소 충전된 멸균 제품이어서 간편한 건강식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양갱은 최근 3년 전부터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 밤뜨래 효자상품이다. 국산밤 함량이 65%를 차지하는데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밤 양갱 제품 중 가장 높은 함량을 자랑한다. 밤 본연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데다 우뭇가사리를 말린 한천으로 만들어 깔끔한 단맛이 특징이다.

맛밤과 밤양갱은 각종 인터넷쇼핑몰, 대형마트, 홈쇼핑 등 다양한 판로를 통해 전국의 소비자들과 만난다. 이 중 홈쇼핑은 밤뜨래가 제품 생산 초기단계부터 마케팅에 공을 들인 분야다.

차 이사는 "홈앤쇼핑 방송과 지금까지 7년째 같이 하고 있는데 롱런 상품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홈쇼핑 방송을 통해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대기업들의 PB(Private Brand) 상품 제안까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롯데마트에서 판매되는 '통큰맛밤'을 비롯해 홈플러스, 세븐일레븐, 농협, 베베쿡 등 현재 밤뜨래가 생산하는 PB상품만 6종류에 이른다. 사조해표, LG생활건강과는 OEM(주문자 상표부착 생산) 계약을 체결해 맛밤 제품을 생산 중이다.

밤뜨래는 이밖에도 각종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당침밤(절임밤), 밤페이스트를 비롯해 밤빵 등 다양한 가공식품으로 품목을 확대하고 있다.

작은 영농조합이 국산밤으로 해당 가공분야 1위에 오르기까지 시행착오도 있었다. 그중 제일 관건은 밤껍질을 벗기는데 들이는 인건비였다.

강신황 대표이사는 밤 가공 과정에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불로 밤껍질을 태워서 제거하는 방식의 화염박피기를 2005년도에 개발해 특허를 냈다. 조합원들은 보다 맛있는 밤을 위해 밤나무 품질개량에 꾸준히 공을 들였다. 부여에 보급된 지 5년째 돼 가는 밤 '뜨래1호' 품종은 본격적인 수확이 시작되면서 결실을 보고 있는 사례다. 뜨래1호 품종은 밤 속껍질이 얇고 기존 품종보다 보다 단맛이 강한 특징이 있다.

밤뜨래 영농조합은 맛밤과 밤양갱의 성공적인 시장 진출에 힘입어 홈베이커리 시장 확대에 따른 신상품을 준비 중이다.

차 이사는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맛밤, 양갱 등 기존 상품의 판매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홈베이커리 시장 확대에 대비해 개인 소비자들이 밤이 들어간 빵이나 쿠키 등을 만들 수 있는 키트를 개발하려고 한다"며 "밤의 모양을 그대로 살린 밤케익 등 다양한 신상품을 개발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 이사는 "천안하면 호두과자가 있듯이 부여하면 맛밤, 밤양갱, 밤빵이 자연스레 연상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맛도 있고 건강에도 좋은 밤 가공식품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김혜동 khd1226@korea.kr

日 글로벌 기업 2곳 1000만 달러 투자 유치

KJC·모리린사 투자 협약 체결
생산공장 건설…경제효과 창출

충남도가 일본 케이제이씨(KJC), 모리린 등 2개사로부터 각각 500만 달러씩 1000만 달러 규모의 외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충남도는 지난 8일 도청에서 KJC 최종식 대표이사, 모리린 이시하라 에이치로 이사, 정낙춘, 이건호 보령·당진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KJC는 일본 및 아시아 지역에서 유아용 식기 및 장난감 등을 생산·유통하는 한국계 글로벌 기업이다. KJC는 이번 협약에 따라 보령 웅천산단 9105㎡ 부지에 500만 달러를 투자해 유아용품 생산 공장 및 물류기지를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신설하게 된다.

모리린은 중국, 태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23여개 원사 및 의류 공장을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당진 합덕산단 1만 3165㎡ 부지에 500만 달러를 투입, 폴리에스테르 원착사 생산 공장을 신설한다. 오는 11월 착공에 들어가 2020년 상반기 준공이 목표다.

도는 이번 투자협약을 통해 앞으로 5년 동안 도내에서 신규 고용 40명, 매출 510억 원, 수출 350억 원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도 관계자는 협약식에서 "이번 신설투자를 통해 기업이 성장하고 충남과 대한민국의 경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투자입지과 041-635-3393

'안면도 관광지' 사상 첫 본계약

도-KPIH안면도, 3지구 사업협약
5년간 5000억, 복합리조트 개발

충남도가 지난 11일 안면도 관광지 3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할 KPIH안면도 사업법인(SPC)과 협약을 맺었다. 1991년 관광지 지정 이후 30년 동안 추진해 온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 역사상 첫 본 계약이다.

도는 KPIH안면도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의무적 이행사항 등을 모두 완료했다는 판단에 따라 협약 체결을 결정했다. KPIH안면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SPC)을 설립했으며, 금융기관의 재무적 투자확약서 등도 제출했다.

KPIH안면도는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일원 안면도 3지구 54만 4924㎡에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면적은 54만 4924㎡로, 주요 건립 시설은 콘도와 상가, 문화집회시설 등이다. 총 투입 사업비는 5000억 원이며, 착수일로부터 5년 내에 준공 예정이다.

KPIH안면도는 사업 이행 보증을 위해 공모 사업 신청 때 5억 원을 납부했다. 내달 9일까지는 제1차 투자이행보증금으로 100억 원을 납부하고, 1년 이내 100억 원을 추가 납부키로 했다.

●관광진흥과 041-635-3891

'시설들깻잎' 소득 1984만원, 1위

깻잎〉양송이〉구기자〉인삼 순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도내 주요 37작목 555농가를 대상으로 '2018년산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결과, 시설들깻잎 소득이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시설들깻잎은 10a당 9005㎏를 수확해 2916만 1864원의 총수입을 올렸고, 총수입에서 경영비 931만 8754원을 뺀 소득은 1984만 3110원으로 나타나 소득율 68%를 기록했다. 주로 금산군에서 재배하고 있는 시설들깻잎의 경우, 전년보다 수량이 276% 늘어 높은 소득을 기록했으나 가격이 낮아지면서 소득이 수량 대비 많이 증가하지는 않았다.

시설들깻잎에 이어 높은 소득을 기록한 작목은 ▲양송이버섯 1953만 2813원 ▲구기자 1586만 4538원 ▲인삼 6년근 1442만 4623원 ▲딸기 1190만 5502원 ▲느타리버섯 1108만 51원 등이다.

전년 대비 소득 증가율이 가장 높은 작목은 시설배추로, 2017년 38만 1807원에서 지난해 213만 4031원으로 무려 459% 늘었다. 또 노지포도가 219만 8004원에서 449만 7501원으로 104.6% 늘었고, 시설호박이 263만 8482원에서 477만 197원으로 80.8% 증가했다.

●농업기술원 041-635-6091

'유망 中企' 10개사 잠재력 '쑥쑥'

중견기업 발돋움 기반 지원 착착

충남도는 지난 6일 도내 10개 업체를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했다. 유망 중소기업은 지역 경제를 견인할 성장 잠재력이 높고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매년 지정 중이다.

올해 유망 중소기업은 14개 시·군에서 42개 업체가 신청해 4.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에 지정한 기업은 ▲천안 비츠로밀텍, 브라이트코리아, 제이티 ▲아산 세종기술 ▲논산 보람씨앤에치, 카시모 ▲금산 농업회사법인금산흑삼, 영남강철 ▲홍성 서해수산푸드 ▲예산 리빙키친 등이다.

이들 업체는 ▲재무구조 건전성 ▲기술 및 품질 관리 수준 ▲기술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일자리 창출 및 수출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인정받았으며, 평균 점수는 77점으로 지난해보다 7.5점 상승했다.

도는 이들 업체에 대해 앞으로 6년 동안 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시 1% 추가 금리 우대, 기업인대상 선정 시 우대(가점 2점),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 선정 시 우대(가점 4점),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3년),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또 충청남도경제진흥원,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표준협회 등과 연계해 다양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지역경제의 뿌리와 같다"라며, "이번에 지정한 유망 중소기업을 비롯, 도내 중소기업들이 탄탄히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1997년부터 519개의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 현재 100개 업체를 지원 중이다.

●소상공기업과 041-635-3439

2019년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지정 10개 업체

연번	지역	업체명	생산품목
1	천안	㈜비츠로밀텍	열전지, 방열패드, 복합소재
2	논산	㈜보람씨앤에치	여성용 생리대
3	홍성	서해수산푸드㈜	소스류, 젓갈류
4	금산	농업회사법인금산흑삼㈜	흑삼 가공품
5	천안	㈜브라이트코리아	클린케이블
6	예산	㈜리빙키친	주방씽크볼
7	금산	영남강철㈜	학생용 책상 및 의자
8	천안	㈜제이티	반도체 검사 장비
9	논산	㈜카시모	가정용씽크대, 반침장,
10	아산	세종기술㈜	자동화 설비

충청남도청 www.chungnam.go.kr

생활SOC 복합화 사업 국비 671억 원 확보

내년도 공모사업 22건 모두 선정
총 2545억 투입해 3년간 추진

충남도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발굴한 생활에스오씨(SOC) 사업 22건이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다. 도는 지난 6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공모한 2020년 생활에스오씨 복합화사업 선정 결과, 신청한 22건이 모두 선정돼 총 671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도의 사업은 ▲온양 원도심 문화복합시설 ▲예산 1100년 기념관 ▲청양군 가족문화센터 ▲주교면 생활문화 플랫폼 ▲서천 브리지 플러스(BRIDGE+) 복합센터 ▲수청초등학교 학교복합화시설 등 총 22건이다.

2022년까지 투입하는 사업비는 국비 671억 원, 도비 404억 원, 시·군비 1470억 원 등 총 2545억 원 규모다. 아울러 도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8건의 '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도 도비를 추가 지원해 시·군 사업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문체부·복지부·여가부·국토부 등 여러 부처를 통해 범정부적으로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추진한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하나의 부지에 문화·체육·보육·의료 등 생활SOC 시설을 2개 이상 연계 건립해 공간 효율성과 주민 편의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복합화 주요 대상은 공공도서관·국민체육센터·생활문화센터·다함께돌봄센터·가족센터·주거지주차장 등이며, 정부는 이번 공모에서 복합화 시설의 적정성 및 기대효과, 주민 요구, 부지 확보 여부 등을 판단해 대상 사업을 선정했다.

도는 내달 중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쳐 12월엔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내년부터 차질없이 실시설계와 사업추진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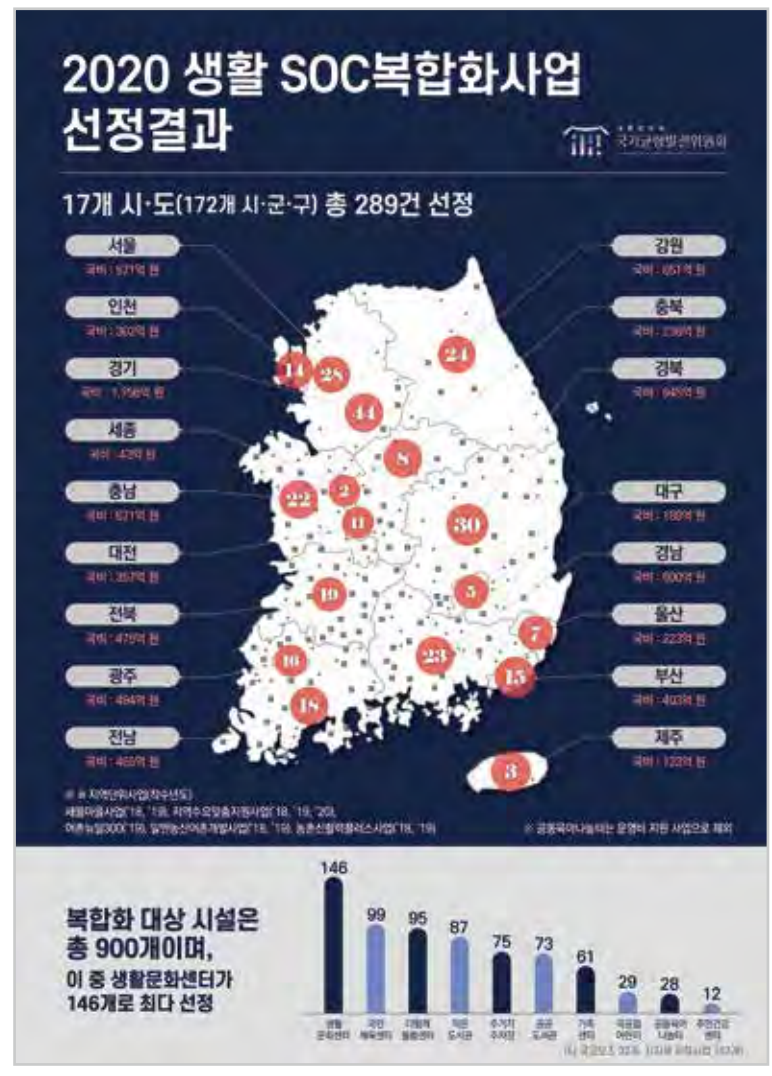
도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사업을 통해 문화·체육·복지 등 지역의 생활SOC 기반을 확고히 다져 도민에게 건강한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것"이라며, "최종 선정된 복합화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균형발전담당관 041-635-2135

2020년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시군구	복합화 사업명	사업비 계
복합화사업 22건 (10종 대상시설 58개소)			254,511
1	천안	천안행복 복합센터 건립	19,330
2		직산도서관 신축	5,120
3		천안시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9,000
4	공주	공주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23,300
5	보령	보령시 가족센터 건립	12,500
6		주교면 생활문화 플랫폼조성	4,225
7	아산	온양 원도심 문화복합시설	10,308
8		모종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14,574
9		배방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19,286
10		음봉복합문화센터 건립	14,603
11	서산	서산시 가족센터 건립	5,906
12	논산	물빛 복합문화센터	6,900
13		상상이상 복합문화센터	27,380
14		연무 복합커뮤니티센터	10,300
15	당진	수청초등학교 학교복합화시설	5,042
16		신평 토탈케어센터	8,000
17	서천	서천 BRIDGE+ 복합센터 조성	1,945
18	청양	청양군 가족문화센터 조성	9,647
19	홍성	홍성군 건강생활 · 교통해소 센터 건립	9,505
20		홍성군 문화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3,000
21	예산	예산1100년 기념관 조성	11,440
22	태안	태안군 복합문화센터	23,200



논산·당진 등 '도시재생 뉴딜' 6곳 선정

지금까지 도내 총 18곳 성과
2025년까지 1조 4408억원 투입
구도심 활성화·일자리 창출 등 기대

충남 논산 화지동 등 6곳이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됐다. 지난해까지 10곳과 올해 상반기 2곳을 더하면 도내에서는 18곳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최종 선정, 총 1조 4408억 원 규모의 구도심 활성화·일자리 창출 사업 등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충남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도시재생 뉴딜 2019 하반기 공모사업에 6곳이 선정, 국비 605억 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국토부에서 선정된 사업은 ▲논산 중심 해월로 재창조 프로젝트(중심) ▲당진 '행복 채운 삶터'(주거) ▲예산 일생을 행복하게 동행하는 예산(〃) ▲보령 철길따라 물길따라 흐르는 삶의 여유 '보령 남대천마을'(일반) ▲논산 강을 담다 산을 닮다 강경고을(〃) ▲서산 400년 고목과 함께하는 양유정마을의 다시 쓰는 400년 도전기(주거) 등이다.

논산시는 화지동 일원에 해월상권·지역 활력 증진사업, 세대융합·공동체 회복 사업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사업비는 372억 원(2020~2025년)이다.

강경읍 일원에도 550억 원을 들여 주거지와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자원 활용 재생,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등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한다.

보령시는 대천동 일원에 약 695억 원을 투입해 남대천 어울림센터, 대천천 수변체육 공간조성, 마을호텔 프로젝트 '대천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공시설 및 생활복지시설을 공급한다.

예산군은 예산리 일원에 약 300억 원을 투입,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동행커뮤니티센터 조성, 돌봄 문화종합센터 조성, 생활편의시설 조성 등을 조성한다.

당진시는 약 427억 원을 투입, 채운동 일원에 도지재생어울림센터, 학교활동 커뮤니티 거점, 학교 앞 안심 광장, 주민역량강화 및 공동체 활동 지원 등을 조성·지원한다.

서산시는 읍내동 일원(10만9000㎡)에 약 150억 원을 투입, 친환경 생활SOC확충, 햇빛센터, 스마트 안심골목, 양유정 공원 공유마당 등 낡은 주거지를 정비한다.

도는 이번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일자리 창출 약 3800명 ▲공공임대주택 635호 ▲주차장 1만 4636㎡(307대) ▲노후주택정비 300호 ▲빈집 철거 24호 ▲공원 조성 2258㎡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11곳 ▲마을회관 및 돌봄센터 등 10곳 ▲핵심앵커 시설 12곳 등 직·간접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축도시과 041-635-4660

도-헤이룽장성, 끈끈한 우정 확인

경제·복지·관광 등 추가교류 제안
관광분야 업무협약 '약속' 성과

충남도가 중국 헤이룽장성과의 지방정부 간 교류 확대 의지를 재확인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 11일 중국 헤이룽장성 자위메이(선전부장 등 관계자를 만나 양 지방정부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헤이룽장성은 도와 2015년 우호협력관계 수립 이후 총 62회 488명이 인문·의회·환경·행정 등 분야에서 교류하고 있다. 헤이룽장성은 역사적으로도 독립운동가인 안중근 의사의 기념관이 있는 곳이자, 항일운동과 관련한 유적지가 많아 충절의 고장인 도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다.

이에 도는 헤이룽장성과의 추가적이고, 더욱 활발한 교류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양 지역 간 전방위적 경제교류 협력 추진 ▲농업기술, 농산품가공 등 농업분야 협력 강화 ▲교육·대학·청소년·문화·복지·공무원 등 인문교류 추진 ▲한·중·러 청소년 다자 교류 ▲충남 개최 국제 포럼 초청 등이다.

특히 헤이룽장성 대표단 방문을 계기로 양 도·성 간 관광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상호 우수한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하기로 약속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좋은 친구이자 동반자로 우정과 평화, 협력과 번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길 기대한다"라며, 양 지역 간 교류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선전부장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헤이룽장성 선전부장 대표단은 복지 분야 교류를 위해 서천 어메니티 복지마을을 찾아 노인복지 등에 대한 해답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국제통상과 041-635-3357

2040, 주민 주도로 도시재생…성장 중심에서 참여와 소통으로

충남의 미래

⑨충남형 도시재생의 길

2040년 충남의 한 작은 소도시, 특징도 없던 그곳에 활력이 넘친다. 인구감소를 넘어 축소도시 시대로 접어들던 충남의 많은 도시들에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었고, 성장 중심의 과밀도시에서 장소적 가치를 높이는 적정도시로의 변화가 일어났다.

충남은 이를 위해 15개 시·군과 각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그 시작은 도시재생을 위한 '충남의 색'을 찾는 것이었다.

「도시재생특별법」(2013.6) 제정을 시작으로 이명박정부의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13곳), 박근혜정부의 일반지역사업(33곳)을 거쳐 현 정부의 핵심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265곳)까지 전국의 도시재생사업지는 총 311곳이며, 선도지역사업은 사업종료와 함께 지속성을 고민하고 있는 단계이다.

현 정부의 도시정책 최대 화두는 '도시재생뉴딜'이다.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은 지난 정부와 비교했을 때, 사업유형이 다양해지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매우 바람직하다. 도시재생은 지역의 핵심문제로, 지역이 주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주민참여와 소통에 기반한 충남형 도시재생사업의 색깔을 찾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한다.

첫째,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에 몰입되기보다는 주민역량에 기초하여 지역문제와 사업과제를 찾고, 그 속에 충남도정과 시·군정의 색을 입혀야 한다. 그래야만 성공적 뉴딜사업 추진과 사업 종료 후 지속성이 담보되기 때문이다.

둘째,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요소는 주민참여를 넘어 주민주도이다. 주민이 더 이상 사업수혜자가 아니라 사업추진 주체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재생 플랫폼이 필요하다.

충남도시재생지원센터-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현장도시재생지원센터의 유기적 연계에서 시작해 서로의 성과를 공유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 역할은 우선 충남도시재생지원센터가 담당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민간으로 넘겨야 한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는 어렵지만 '(가칭)도시재생 펀드'를 조성하여 한다.

셋째, 사업추진방식은 '공모방식'에서 '제안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중앙정부의 공모방식에 수반되는 많은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지방정부마저 공모방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급조된 공모사업이 아니라 진정으로 준비된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것이 충남의 도시에 생명을 불어넣고, 대한민국의 도시재생을 선도할 충남형 도시재생이다.

/임준홍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www.chungnam.go.kr 충청남도청

‘환황해’, 공생을 위한 모두의 공간으로

제5회 환황해 포럼, 이달 말 개최
한·중·일의 평화·번영·공생 모색

충남도는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양일간 롯데부여리조트에서 제5회 환황해 포럼을 개최한다. 도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반도평화포럼과 충남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환황해! 인류공생을 위한 우리 모두의 공간’을 주제로 설정했다.

포럼에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팡쿤 주한 중국공사,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한·중·일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포럼 첫날인 31일에는 개회식에 이어 문 특보가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이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남북교류협력의 길을 묻다’를 주제한 특별세션에서는 남북정상회담, 북미대화 등 한반도를 둘러싼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상황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중·일의 노력과 충남의 역할 모색 및 남북협력 선도사업 발굴 등을 탐색한다.

이후 본 세션은 ▲역사문화공동체로서의 환황해 지역협력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국제일자리 활성화 ▲지자체 간 대기환경 개선 협력 ▲지자체 간 해양오염 개선 협력 등 4개 주제로 연다.

‘역사문화공동체로서의 환황해 지역협력’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는 환황해라는 지역적 공간을 배경으로 오랜 교류와 협력의 역사를 지닌 한·중·일 3국의 갈등 해소와 공동체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저출산·고령화 대책 및 국제일자리 활성화’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성장 한계에 직면해 있는 한·중·일 3국의 대책을 비교하여 시사점과 협력방안을 도출하고, 국경을 초월한 청장년 취·창업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또 ‘지자체 간 대기환경 개선 협력’ 세션에서는 대기오염으로 심각한 환경문제에 직면해 있는 환황해 지역 지자체 간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방안을, ‘지자체 간 해양오염 개선 협력’ 세션에서는 황해의 오염실태와 그 개선을 위한 각국 지자체의 노력과 협력방안을 토론한다.

환황해 포럼 이틀째인 2일에는 백제문화단지와 부소산성, 정림사지 등 부여 백제역사유적 탐방이 진행된다.

●균형발전담당관실 041-635-3205

‘종합 7위’ 목표로 필승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출전
충남도 선수단 결단식 개최

충남도 장애인체육선수단이 ‘종합 7위’ 목표 달성을 위한 필승을 결의하고, 정정당당한 승부를 다짐했다. 도는 지난 8일 홍성군장애인스포츠센터에서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결단식을 개최했다.

오는 15~19일 5일간 서울특별시 일원에서 열리는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우리 도 선수단은 선수 354명, 보호자 및 임원 234명 등 총 588명이다. 도는 이번 대회에 앞서 올해 1월 전국 최초로 남·여 골볼실업팀을 창단했고, 태권도 팀에 여성 청각선수 2명이 입단했다.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에 출전하는 충남 선수단 결단식에서 대표선서를 하고 있는 선수의 모습

또 8월에는 도내 기업 최초로 신화인터텍 직장 운동부에 보치아·볼링 등 4명의 선수가 정규직으로 입단해 선수들이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했다. 아울러 역도·수영 종목 등에 전문지도자를 배치하고, 강화 훈련비를 추가 편성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펼쳤다.

●체육진흥과 041-635-3864

‘꽃게’를 충남 수산물 대표선수로

전국에서 생산량 최고, 활용성 우수
캐릭터 개발로 ‘마케팅 나선다’

충남 대표 수산물로 꽃게가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라 도는 꽃게를 활용한 캐릭터 개발에 착수했다.

도는 최근 ‘충청남도 도어선정위원회’를 열고, ‘충남의 수산물’로 꽃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충남의 수산물은 수산물 소비 촉진과 어촌 경제 활성화 등에 활용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선정을 추진해 왔다.

도는 우선 ▲충남을 대표하고 인지도가 대외적으로 높은지 여부(대표성) ▲타 시·도 대비 충남도만의 경쟁력 및 고유성을 나타낼 수 있는지 여부(차별성) ▲미래 예상되는 기후변화 및 변화 요인을 감안한 생존력, 수확량 확대 여부(지속가능성) ▲충남 수산 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가 높은지 여부(활용성) 등을 평가 기준으로 설정했다.

도는 ▲꽃게(합산점수 70.8점) ▲대하(〃 64.2점) ▲바지락(〃 63.4점) ▲김(〃 60.3점) ▲주꾸미(57.2점) 등 5개 수산물을 후보로 뽑고, 도어선정위원회 종합토론을 거쳐 꽃게와 주꾸미를 최종 후보로 압축했다.

최종 후보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도는 생산량과 어업인 수, 활용성 등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꽃게를 충남의 수산물로 선정했다.

꽃게는 서해안 6개 시·군 자문회의에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고, 예전부터 최고 수산물로 서해 꽃게의 명성이 높았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다.

또 매년 어린 꽃게 방류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갖추고 저지방 고단백이라 혈관에 좋으며, 키토산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웰빙음식으로 향후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수산물이라는 점도 이번 선정의 배경이 됐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꽃게 캐릭터를 개발해 충남 수산물 마케팅에 활용하고, 연관 산업 육성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정책과 041-635-4767

충남 대표 수산물로 선정된 꽃게

도립대 호텔조리제빵학과 실력 뽐뿜

장성 황금요리대회 전원 수상
자체 개발 특제 레시피 눈길

충남도립대학교(총장 허재영)는 호텔조리제빵학과 학생들이 제1회 장성 황금요리 경연대회에서 참가해 전원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대회는 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졌으며, 총 12명의 재학생이 참가해 6개 팀을 이뤄 경연을 펼쳤다.

황금요리 대회는 예선 레시피 심사와 본선 요리 경연으로 진행됐다. 예선에서 재학생 6개 팀은 특제 레시피를 선보이며 참가한 200여 팀과의 경쟁을 뚫고 최종 본선에 진출했다. 특히 대회에 참여한 유수진, 이성재 학생은 치킨과 카레, 고구마, 쌈무말이를 재료로 한 ‘골든무스 카레 리조또’ 레시피를 통해 장려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장성군수상을 수상한 다른 팀들은 ▲수육과 강황을 활용한 ‘황금으로 보이는 슉’ ▲호박퓌레를 곁들인 카레 꿔바로우 ▲돼지껍데기와 장어를 이용한 ‘황금장어롤’ ▲장어와 계란을 곁들인 ‘Eel in th gold’을 선보이며 눈길을 끌었다.

지난 6일 장성 황금요리 경연대회에 참가한 충남도립대 학생들이 요리경연을 펼치고 있다.

허재영 총장은 “호텔조리제빵학과는 세계3대 요리학원인 KCIA와 협약을 맺고 전문 셰프를 영입하는 등 학생들이 미슐랭스타셰프로 성장하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립대학교 041-635-6757

간추린 도정

건설공사 품질·안전관리 길라잡이로 확인하세요

충남도 종합건설사업소는 건설공사 관련 직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건설공사 품질·안전관리 업무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건설 관련 품질과 안전관리·관리 요령·시험 방법·법규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수록했다.

특히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 등을 위해 품질·안전 관리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법규를 발췌, 건설 관계 기술자들이 쉽고 빠르게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도는 이 책자를 도와 15개 시·군 건설 관련 부서에 배포해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도 종합건설사업소 관계자는 “이번 책자는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품질·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종합건설사업소 041-635-7562

농작물 병해충 신속·정밀 감시 전국 최초 예찰조사원 모집

충남도 농업기술원이 전국 최초로 ‘농작물 병해충 예찰조사원’을 모집·운영한다.

예찰조사원은 거주 지역 농업기술센터의 내년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 활동부터 전문가로 참여하고, 소정의 활동 수당을 지급 받는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도내로 돼 있고 현재 도내 거주 중인 농업 관련 기관·단체 재직 경력자 및 농업인, 청년 등 농작물 병해충 예찰조사에 관심 있는 도민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작물 병해충 업무 담당자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도 농기원은 예찰조사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작물 병해충 예찰 요령과 진단 방법 등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소정의 평가를 거쳐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원 041-635-6166

(재)백제세계유산센터 대한민국 SNS 대상 ‘최우수상’

(재)백제세계유산센터(이하, 백제유산센터)가 제9회 2019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공공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백제유산센터는 적극적인 온라인 홍보 활동으로 전년 대비 블로그 방문자 수가 22% 증가하였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유적별 특성에 맞는 최적화 작업 진행과 시기적절한 온·오프라인 이벤트 진행을 통한 사용자의 방문 유도 등으로 호평을 받았다. 또한 올해부터는 SNS기자단을 확대하여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외국어 콘텐츠를 제작·홍보하였고, 유관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 소재를 발굴하여 즉각적인 정보 등을 제공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상식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재)백제세계유산센터 042-488-9724

충청남도청 www.chungnam.go.kr

충청남도 탄생부터 내포시대까지 '한눈에'

'기록으로 보는 충남' 18일까지
근대 희귀문서·사진·장비 등 전시

100여 년 전 충남도청에서 사용하던 영문 타자기는 어떻게 생겼을까. 80여 년 전 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하고, 2012년 내포신도시로 다시 이전할 때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1896년 충청남도 탄생부터 현재까지 120여 년 동안 충남의 변화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다.

도는 지난 7일 도청 지하1층 전시공간에서 '기록으로 보는 충남' 전시회를 개막했다. 오는 18일까지 12일 간 진행하는 이번 전시는 ▲근대 행정 장비 ▲충남도 탄생 및 1930년대 도청 이전 ▲충남의 옛 모습 ▲내포 시대 충남도정 등 5개 주제로 구성했다. 전시물은 총 134점이다.

이 중에는 고종 33년(1896년) 칙령 제36호를 통해 전국 23부로 구성된 지방행정조직을 충남도를 비롯한 13개 도로 개편하고, 수부의 위치를 정했음을 알리는 서류를 포함했다.

공주 충남도청 정문의 모습

또 1932년 도청 이전 관계철, 1931년 도청 대전 유치 대전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사진과 도청 이전 반대 시위로 구속된 주민 석방 촉구 시위 사진, 도청 대전 이전 기념 대전시민 경축운동대회 사진 등도 전시해 당시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 장비로는 1910년대 영문타자기와 1940년대 벽걸이용 전화기, 교환원 연결 행정전화기, 카메라, 망원경, 1950년대 공문서 사송 가방 등을 선보였다.

도는 이와 함께 1932년 안창호 선생 충남 방문, 유관순 열사가 2년 간 다닌 공주 영명여학교, 진잠공립보통학교, 예산농고의 전신인 공주농업학교 1회 졸업생 모습이 담긴 사진 등도 전시했다.

전시 사진 중에는 이밖에 1913년 공주 중심 시가지, 1924년 강경상고와 1957년 충남대 모습, 1931년 대전우시장, 1932년 도지사 대전 관사, 1910년 연기군청, 1932년 아산군청, 1932년 논산군청, 1950년 금강철교 폭파 장면 등도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도 관계자는 "충남의 근현대 변화상을 알리고 기록문화의 중요성을 전하기 위해 120년이 넘은 충남의 역사 중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문서와 사진, 물품 등으로 이번 전시회를 마련했다"라며 많은 관심과 관람을 당부했다.

●운영지원과 041-635-3792

기부행위 주요 위반사례

축·부의금품 제공
- 경조사 또는 행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직·성명이 게재된 근조·축하화환 전시
- 결혼식에서의 주례

식사·음료·교통편의 등 제공
- 누구든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식사 등 음식물 제공
-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 제공

회비·헌금 제공
- 친목회·동창회의 정관 등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는 외에 별도의 기금 제공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평소 다니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여 헌금

구호·의연금품 제공
- 경로당·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음료 등 금품 제공 (수용보호시설·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은 가능)
- 연말연시에 선거구 내의 경찰관서에 격려금 제공

무료상담·무상 임대
-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업인의 법률·세무 등 전문분야에 관한 무료상담 제공
- 선거구 내 봉사단체 및 선거구민에게 사무실·사무기기·용품 등 무상 임대

상장·부상 수여
- 선거구 내 단체의 내부행사에서 상장과 부상 수여
- 각급 학교의 입학식 및 축제·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

알고 먹으면 더 건강한 '미더유' 인증식당

로컬푸드 식당 미더유 발굴·지원
도내 37곳, 매년 재인증으로 검증
농산물 직거래 확대로 소득 UP

충남도는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와 건강한 먹거리 문화 조성을 위해 로컬푸드 인증식당인 '미더유'를 발굴·지원한다고 밝혔다.

'미더유'는 지난 2012년 충남연구원 충남6차산업센터에서 처음 시작한 인증제도로, 지역농가와 농산물 직거래 확대로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외식인증 브랜드다.

미더유 인증을 통해 지역농산물 사용을 장려, 우리지역 향토 음식의 가치를 함께 지키고 높여 농촌지역 활성화를 견인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센터에서 관리하는 '미더유' 인증업체는 총 37곳으로, 매년 재인증을 거쳐 주재료 지역농산물 사용 여부, 위생상태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인증받은 미더유 업체들은 '충남 미더유 협의회'를 자발적으로 만들어 지역농산물 생산자와의 직거래를 활성화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도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기존 충남연구원장이 인증하던 것을 도지사가 인증하는 것으로 격상, 도를 대표하는 로컬푸드 맛집으로 거듭나게 할 예정이다"라며, "농산물 활용 비율 역시 기존 50%에서 70% 이상으로 상향, 농촌 활력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추욱 도 농림축산국장은 "도는 자격요건을 갖춰 선정된 미더유 인증업체에 대해서 충남 로컬푸드 대표 명칭 사용 자격이 부여됨과 동시에 미더유 소개책자 제작,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 로컬푸드 미더유 인증을 희망하는 도내 외식업체는 충남연구원 충남농업6차산업센터(041-635-0148)로 문의하면 된다.

●농촌활력과 041-635-4063

지난 1일, 예산 윤봉길의사기념관을 방문한 시각장애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마음으로 느끼는 인문학 기행 펼쳐

충남도서관, 예산·당진서
시각장애인 맞춤프로그램 진행

충남도서관(관장 나병준)은 지난 1일 예산·당진 일원에서 '가슴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는 시각장애인 인문학 기행'을 개최했다. 이번 인문학 기행은 평소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에게 지역의 역사인물과 문학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마련한 소통의 장이다.

논산지역 시각장애인 21명, 자원봉사자 14명 등 총 35명이 참여한 가운데 연 이번 행사는 윤봉길의사 기념관 관람, 심훈 기념관 방문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예산 윤봉길의사 기념관을 방문해 윤 의사의 업적을 기리고, 당진 심훈 기념관을 찾아 작가의 삶과 작품의 시대적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충남도서관 관계자는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지식정보 접근성 향상과 독서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청각장애인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기획·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남도서관 041-635-8041

옜다, 쑥떡이나 먹어라

이명재의 충청말 이야기 (24)

북한에선 '엿 먹어라'
서울서는 '감자 먹어라'
힘 잃은 충청말은 역사 속으로

지역에 따라 말은 다르다. 교통통신이 단절된 옛 시절의 말은 더욱 그랬다. 그래서 남도 사람과 북도 사람이 만나면 말이 통하지 않았다.

해방 시절, 함경도 사람과 경상도 사람이 서울 설렁탕집에서 만났다. 설렁탕이 귀하던 시절, 함경도 사람은 설렁탕이 낯설다.

경상도 사람은 고춧가루를 한 술 설렁탕에 넣는다. 함경도 사람은 고춧가루를 모른다. 날씨가 매운 북쪽엔 고추 농사가 없으니까. 그 붉은 가루가 무엇인지 궁금한 함경도 사람이 묻는다.

"이거이 무시기?"

'무시기'를 모르는 경상도 사람이 고개를 든다.

"무시기 머꼬?"

'머꼬'를 모르는 함경도 사람.

"머꼬이 무시기?"

답답하다. '무엇이냐'를 함경도에서는 '무시기', 경상도에서는 '머꼬'라 한다. 같은 말을 두고 '무엇이 무엇이냐' 되물으며 고개를 갸웃거린다.

네이버 질문란에서 우연히 '쑥떡'을 발견했다. 누군가 '쑥떡 먹어라'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물었다. 다른 질문에는 주르륵 댓글이 달렸는데, 1년이 지난 이 쑥떡엔 아무도 답이 없다.

충청도에 쑥떡이 잘 팔리던 시절이 있었다. 세상이 혼란하면 말도 거칠어진다. 일제와 전쟁이 쓸고 간 세상엔 폐허가 나부꼈다. 먹고 살기가 팍팍했다. 곳간에서 인심 나는 법인데, 곳간이 비고 뱃구레가 등에 붙은 사람들은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입도 거칠어졌다. 맘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때 없이 쑥떡을 날렸다.

"옜다, 쑥떡이나 먹어라."

"낯짝배기다 들이대구 쑥떡을 멕였더니, 그 눔 얼굴이 벌거지더먼."

어른도 아이도 왼손바닥으로 오른손 주먹을 감싸 쥐었다간 들이밀었다. '쑥떡'은 남자의 성기를 빗댄 말이다. 그래서 쑥떡을 먹이는 것은 상대에게 욕을 보이는 짓이다. 손짓과 어우러져 쌍욕이 되는 충청도의 '쑥떡 먹어라.'

이를 서울 경기지역에서는 '감자(고구마) 먹어라'라 한다. 그리고 평안도를 중심으로 한 북한에서는 '엿 먹어라'를 많이 쓴다. 한때 충청도에서 휘날리던 쑥떡은 서울의 감자에 밀렸다. 그리고 북한말 '엿 먹어라'가 유행하자 급격히 사라져 갔다.

"쓸데없는 짓 말고 감자나 먹어."

"헛소리 그만하고 엿이나 먹어라."

시절이 좋아지면서 '감자'와 '엿'이 순화되었다. 꼭 성기를 뜻하는 말이 아니라,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퉁을 주는 말이 되었다. 그런데 유독 충청도의 '쑥떡'이 사라졌다. 충청말이 힘을 잃으면서 네이버의 질문창에 답변도 달리지 않게 되었다.

이 명 재
예산군 내포제시조 보존회 회장

도립대 '루덴스칼리지' 개강

3개 분야 17개 강좌 236명 참여
'교직원-학생' 소통 강화

충남도립대학교(총장 허재영)가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해 새롭게 마련한 '기숙형캠퍼스 RC(Residential College, 이하 RC)' 프로그램 2학기 강좌를 시작했다.

RC는 도립대가 정규 교과 과정으로 담아내기 어려운 학생들의 융복합·소통 능력을 높이고, 학생 스스로 관심분야를 개척하도록 마련한 교육혁신 프로그램이다.

도립대 교수학습지원센터에 따르면 2학기 RC는 재학생과 교직원 등 236명이 참여한 가운데 9월부터 11월까지 총 10주에 걸쳐 진행된다. 2학기 RC는 ▲외국어·인문 ▲체육 ▲창작 등 3개 분야 17개 강좌로 구성했으며, 대학 교직원도 함께 참여하도록 외연을 확대하고 학생과 대학 간 소통 기회를 넓혔다.

구체적으로 외국어·인문 분야에는 여행중국어, 기초영어회화, 독서토론회 등이 마련됐으며, 체육 분야에는 요가와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등이, 창작 분야에는 캘리그라피가 진행된다.

이번에 개설된 17개 강좌 모두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했다. 특히 2학기부터는 RC프로그램의 명칭을 '루덴스 칼리지(Ludens College)'로 전환하고 '충남도립대학 교형 RC 프로그램'의 기초를 세운다는 계획이다.

●충남도립대 041-635-6615

문화행사

코미디연극 운빨로맨스

■일시 : 10월 24일
■웹툰작가 '김달님'의 웹툰이 드라마에 이어 로맨틱 코미디 연극으로 재탄생했다. 최단기간에 10만 관객을 돌파한 흥행작을 보령에서 만나보자. 정해진 운명을 믿는 여자 '점보늬'와 자신의 의지로 운명을 개척하는 남자 '제택후'의 아슬아슬 외줄 타듯 펼쳐지는 달콤하고 짠맛 나는 사랑 이야기가 펼쳐진다.
■장소 : 보령문화의전당
■문의 : 041-930-3423

창작뮤지컬 '만해의 불꽃'

■일시 : 10월 25~26일
■독립을 위해 일제와 싸운 만해 한용운의 불꽃같은 이야기가 창작 뮤지컬로 펼쳐진다. (사)한국음악협회 충남도지회가 주최하고 충청남도, 홍성군 후원으로 제작됐다. 한용운 역할은 성악가 김형기 평택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셜록홈즈 등 다수의 뮤지컬에서 주요 역할을 맡았던 이지연은 임시정부 요원으로 출연한다. 선착순 입장으로 전석 무료공연이다.
■장소 : 홍성 홍주문화회관
■문의 : 041-412-5078

은밀하게 위대하게

■일시 : 10월 25일~26일
■은밀하게 위대하게는 달동네 슈퍼집 바보가 사실은 북한 최정예 스파이라는 독특한 설정으로 엄청난 팬덤을 만들어내며 100만독자를 거르니고 있는 웹툰계의 대작이다. 독특한 소재와 웃음으로 감동을 주며 긴장감을 더하는 액션 등 다양한 매력이 녹아있는 뮤지컬 작품이다.
■장소 : 당진문예의전당
■문의 : 041-350-2911~5

와이즈발레단 '신데렐라'

■일시 : 10월 26일
■와이즈발레단의 특별한 색채로 가득한 신데렐라가 꿈과 희망이 가득한 환상의 세계를 선물한다. 와이즈발레단은 화려한 의상과 무대, 무용수들의 아름다운 움직임으로 환상적인 동화의 세계를 무대위에 재현한다.
■장소 : 공주문예회관
■문의 : 041-840-2203

어린이뮤지컬 '안녕 도깨비'

■일시 : 10월 26일
■우리나라 도깨비 이야기와 무대인형극이 만나 탄생한 특별한 환타지 음악 인형극이다. 고전과 현대를 잇는 도깨비의 이야기가 신나는 음악과 율동으로 관객에게 다가간다. 어린이들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내용으로 가족이 함께 관람하면 좋다.
■장소 : 아산시평생학습관
■문의 : 070-4242-4545

2019 그랬슈 콘서트

■일시 : 10월 26일
■충청남도 전통예술브랜드 공연 그랬슈(Great To See You)이 다시 돌아왔다. 충남문화재단 주최로 서천문예의 전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공연에는 충남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국악 뮤지션들이 출연, 국악의 과거와 현재를 재조명한다.
■장소 : 서천문예의전당
■문의 : 041-339-8211~5

사랑의 연탄나눔 콘서트

■일시 : 10월 29일
■(사)기빙트리 천사운동본부는 해마다 독거노인,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약 34만장의 연탄을, 8000여명의 자원봉사자와 지원해오고 있는 단체다. 아름다운 섹소폰 선율을 감상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의 손길을 내밀어보는 것은 어떨까.
■장소 : 천안시청 봉서홀
■문의 : 010-5312-0456

소화제(재즈공연)

■일시 : 10월 29일 오전 11시
■충남문화재단이 10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준비한 재즈공연이다. 공식 명칭은 '소소한 일상, 화창한 어느 날의 재즈 축제'이다. 클래식, 영화 음악, 대중음악, 애니메이션 수록곡, 동요 등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재즈로 편곡해 들려준다.
■장소 : 충남문예회관
■문의 : 041-630-2913

이니찌아

■일시 : 10월 30일
■4명의 성악가와 뮤지컬 배우의 멋진 노래로 시작되는 음악회. 관객들의 고민을 소개하고 음악으로 위로하겠다는 음악회는 첫 고민부터 예상못한 인물의 사연이 채택되며 배배 꼬이기 시작하는데...음악회는 과연 배배꼬인 인생문제를 가진 관객들에게 속 시원한 응원을 보낼 수 있을까?
■장소 : 홍주문화회관
■문의 : 041-634-0021

뮤지컬 '빈센트 반 고흐'

■일시 : 10월 30일
■인상파의 거장 빈센트 반 고흐의 이야기가 뮤지컬로 재탄생했다. 그림을 사랑한 화가 빈센트 반 고흐, 그를 위한 동생 테오 반 고흐의 아주 특별한 선물을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만나보자. 빈센트 역에 이준혁, 테오 역에 박유덕이 활약한다.
■장소 : 충남도청 문예회관
■문의 : 1644-9289

베토벤과 카알 in 계룡

■일시 : 11월 8일 오후 7시30분
■베토벤과 그의 조카 카알의 실화를 재해석하여 베토벤의 생과 음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선사하는 작품이다. 베토벤과 조카 카알에 대한 집착에 가까운 애정, 그로인한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저항하는 카알의 방황과 고뇌, 그리고 베토벤의 죽음. 두 인물 간 극한 감정의 대립은 작품 전개에 김장감을 준다.
■장소 :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문의 : 042-840-3707

창작가무극 '윤동주, 달을 쏘다'

■일시 : 11월 7~8일
■일제 강점기, 역사의 참담한 현실을 펜으로 맞섰던 시인 윤동주의 삶을 통해 격동의 시대에 자유와 독립을 꿈꿨던 순수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아냈다. 영상으로 만나는 뮤지컬 '윤동주 달을 쏘다'는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VIP석에서도 볼 수 없는 배우들의 생생한 표정과 몸짓이 10대 이상의 카메라 앵글로 다양한 각도에서 만들어낸 생동감 있고 역동적인 화면과 현장감 넘치는 사운드를 대형 스크린에 펼쳐 보인다.
■장소 : 서산시문화회관
■문의 : 041-661-8031

빨간 피터의 고백

■일시 : 11월 23일 오후 4시
■빨간 피터의 고백은 배우이며 연출가인 백진기의 모노드라마이다. 1987년 포항에서 초연한 이래 일본 로즈페스티벌 초청공연, 서울 아르코극장 공연으로 백상예술대상 신인연기상에 노미네이트 됐다. 또한 금복문화예술대상, 대한민국 청년문화대상(연극 연출부문)을 수상했다.
■장소 :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문의 : 042-840-3707

기미년 이후 백년

■일시 : ~11월 24일
■독립기념관은 3·1운동 및 광복절 74주년을 맞이해 3·1운동에 대한 지난 100년 간의 기억 작업을 살펴보는 특별기획전시를 진행 중이다. 1919년 3월 1일 일제에 항거하여 전 민족의 독립의지와 열망을 보여준 3·1운동은 독립운동사뿐 아니라 한국사의 한 획을 가르는 중대한 사건이다. 3.1운동을 키워드로 본 한국근현대사 100년을 주제로 대한독립만세 태극기 등 80여전의 유물이 전시된다.
■장소 : 독립기념관 특별전시실
■문의 : 041-560-0114

석장리박물관 특별전

■일시 : ~2020년 2월 28일
■공주 석장리박물관 손보기 선생 기념관에서는 '바다를 건넌 선사인들'이란 주제로 흑요석에 대한 특별전을 진행하고 있다. 흑요석은 후기 구석시대에서부터 신석기시대까지 선사시대 인류에 의해 활발히 사용됐다. 일본과 한국에서 출토된 흑요석계 석기들을 통해 바다를 둘러싼 한반도와 일본 열도 간 선사시대 인류의 삶과 문화를 이해해보자.
■장소 : 공주 석장리박물관
■문의 : 041-840-8924

그림으로 떠나는 충남여행스케치

고란사 가는 길

가을 태풍을 뒤로하고 맑게 갠 어느 날 부여로 향했다. 아늑한 석성마을의 누런 들을 누비며 이곳저곳을 스케치하고 가을이 아쉬워 낙화암으로 향했다.

구드래 나루터 선착장에서 황포돛배를 타고 우리를 환영하는 듯한 백마강에 서식하는 물고기 떼를 바라보자니 어느새 고란사에 도착 한다.

고란사는 백제 말기에 창건되어 사찰의 유래는 암벽에 자라고 있는 고란초로부터 온 것이란다. 백제 멸망과 함께 소실된 것을 고려시대에 백제의 후예들이 삼천궁녀를 위로하기 위해 중창하여 오늘에 이르렀단다.

고란사에 백화정, 낙화암을 보고 나오면서 황포돛배와 백마강이 흐르는 부여의 모습을 스케치 해본다.

글·그림/서양화가 홍기옥

후배들의 절실한 '필요'를 채워라!

내포칼럼

이 환 의
홍성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장

제각각 꿈을 갖고 정착하는 귀농인들
새로운 터전서 갖은 우여곡절 겪어
귀농선배들이 후배 귀농인 도와야

'귀농인의 집' 같은 자립공간 등
관련 편의시설 곳곳에 확충하고
관리시스템 구축해 지속적 돌봐야

어디 놀러가기에 딱 좋을 날씨인 한 글날 아침, 여느 때보다 이른 아침을 먹던중 아내가 "일찍 끝내고 산에라도 가요"라며 어렵게 말을 꺼냈다.

둘 다 평일에는 직장에 나가고 주말에는 농사를 짓기에 쉴틈이 거의 없었던지라 아내의 심정은 납득이 가지만 할 일을 떠올려보니 머뭇거릴 수밖에 없다. 오늘은 사무국장님과 함께 귀농인의 집 세 채를 청소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아침 일찍 도착한 귀농인의 집은 전부터 비어있는 보건지소를 수리해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일년간 빌려주는 곳이다. 워낙 낡은 건물이라 입주자들의 요청으로 이번에 단열과 방수 공사를 보강했다. 하지만 입주전 청소를 하러간 사무국장님과 나는 눈앞에 펼쳐진 기막힌 광경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무리 리모델링 전이라고 해도 마치 천재지변으로 황급히 집을 비운 것처럼 방안은 난장판에 가까웠다. 씽크대 주변은 기름때로 얼룩지고 밥통엔 먹다남은 밥이 곰팡이로 변한지 오래였다. 욕실엔 온통 시커먼 물때가 뒤덮은 데다 커튼은 건드리기만 해도 먼지가 풀풀 날렸다.

저녁 여섯시가 넘어서야 간신히 일을 끝낼 수 있었는데 그래도 심란하기 짝이 없었던 공간이 산뜻하게 변신한 걸 보니 뿌듯하기 그지 없었다.

그밖에도 입주자의 편의를 위해 대중교통 시간표와 관공서를 비롯해 가스업체와 인근 음식점 연락처 등도 게시하기로 했다. 아예 방방마다 기본 정보 게시판을 마련하고 귀농 관련 책도 넣어줄 계획이다. 또한 비슷한 일이 생기지 않게 대학가 원룸 수준으로 관리해 들고 날 때 청소와 기물 상태를 살피고 청소 보증금 제도도 만들려고 한다.

사실 필자 역시 십 년 전부터 귀농인의 집을 운영하며 귀농 후배들을 만나왔다. 아니 정부의 지원이 있기 전에도 공간을 준비해 마을과 지역에 빈 집이 생길 때마다 입주와 농사 안내를 아끼지 않았다. 빈 집에 들어가기 전 청소는 물론 농기구를 함께 사러가고 부족한 일손을 채워주며 초기 정착을 도왔다.

한 때는 다섯 채나 운영했기에 적지 않은 후배들이 거쳐갔고, 매년 함께한 교육생이 인턴을 마치는 날에는 불러서 새내기 농부의 탄생을 축하해주는 홈커밍데이 이벤트도 열어왔다. 덕분에 지역에서 필자의 이름을 딴 '○○·사단'이라는 별칭도 생겼다.

사실 청소 역시 보이는 곳만 했으면 집에 돌아와서 밤새 끙끙 앓지 않을 수도 있었다. 조금 일찍 끝내고 모처럼 부탁한 아내의 간절한 요청도 들어주었더라면 마사지중에 아내의 등짝 스매싱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구석구석 건드리지 않으면 성에 차지 않는지라 한 동안 무거운 마음이었을 게 뻔하다.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마음이 시키는 일이니 어쩔 수가 없다.

과거 우리 지역 사회를 깊이 들여다보던 모 연구원이 필자와 장시간 인터뷰를 한 뒤 지인에게 '후배들을 돕지 않으면 안달이 나는 사람'이라고 했단다.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이나 눈에 뻔히 보이는 일거리를 무심히 지나치기가 어려운 것은 맞다.

그래서 평일보다 더 바쁜 휴일에도 종종 도움을 원하는 도시민이나 후배를 만나러가는 바람에 아내의 불평이 이어지지만 그런 이를 만났으니 어찌하랴.

임을 '언제나 내편'으로 바꿨다. 오죽하면 그랬겠냐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을 먼저 살피는 필자의 행보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아내에게는 할 말이 없지만 공무에 임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세 가지 갈증

나태주의 풀꽃편지

시인·풀꽃문학관장

인간에겐 몇 가지 갈증이 있다고 본다. 육신의 갈증과 마음의 갈증과 영혼의 갈증이 그것이다. 가장 급하고 중요한 것은 육신의 갈증이겠다. 물을 마시고 싶은 본능적이고 기본적인 갈증이다. 하지만 이 갈증은 쉽게 해결이 가능한 갈증이다.

이에 비해 마음의 갈증은 좀 복잡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 문화적 갈증이라고 보겠는데, 주로 예술적인 방법이나 문화적인 참여를 동원한다.

나만 해도 청소년 시절부터 시를 읽으면서 마음의 갈증을 해소해 왔다. 누군가 내가 느끼거나 생각했을 법한 마음을 시로 표현해 놓았을 때 그 시에 몰입하게 되는 것이다.

묘하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쪽으로 심하게 쏠리는 경향이 있다. 한두 사람이 좋다고 말을 하고 그것이 입소문이 나고 조금씩 퍼지다가 일정 수준에 오르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시인과 그 시인의 작품에 몰린다. 이것 또한 갈증 해소의 욕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다.

요즘 풀꽃문학관에 사람들이 찾아오고 나의 문학 강연을 청하고 또 나의 책을 사주고 그런 일들이 모두가 이런 정신의 갈증 탓이 아닌가 싶다. 그러므로 나는 충분히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 나에게 그러는 것은 오로지 내가 좋기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와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영혼의 갈증은 종교적 갈증에 해당한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방을 방문했을 때 우물가에서 물을 긷는 여인을 만나 들려준 말이 바로 그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내가 쓰는 시가 그런 영혼의 갈증까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까지는 감히 생각하지 못한다. 그러나 마음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의 시가 되기를 바란다.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에게 축복을 주고 응원이 되어주는 그런 시가 되기를 소망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나의 시는 설 땅이 마땅히 없어 보인다.

지역 축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생생현장리포트

김 정 기
서천신문 편집국장

이달초 충남의 최남단 서천군은 축제로 시작하며 축제로 끝이 났다. 전어·꽃게 축제에 이어 장항센셋페스티발, 해랑들랑축제 등 크고 작은 지역 축제가 같은 곳, 같은 시기에 연달아 개최되었고 주민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 변함없이 냉담한 반응을 이어갔다.

10여개가 훌쩍 넘는 지역축제 개최와 폐막시마다 하는 얘기지만 서천의 축제는 많아도 정말 너무 많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정작 꼭 있어야 할 축제는 없는 것이 서천 축제의 현주소로 우선순위가 거꾸로 된 느낌이다. 서천군의 특산물 삼총사중 맏형격인 한산모시는 매년 성대한 축제를 통해 그 이름값을 하고 있지만 충남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서천의 대표 수산물인 김은 수년전 반짝 축제를 진행했을 뿐 자취를 감춘지 오래다. 또 올해 청와대 대통령 추석선물로까지 선정되며 전국적인 명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소곡주의 경우 푸대접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10억원 가량 투입된 장항선셋페스티벌의 10분의 1만 투입해도 나름 괜찮은 축제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올해로 4회째를 이어 온 한산소곡주 축제에 대한 군의 예산지원은 0원으로 주민들끼리 알아서 올해 축제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물론 다양한 축제 개최는 지역 주민들의 화합을 이끌며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지만 지금 서천의 축제는 편의점의 1+1 행사 상품도 아닐 진데 질보다는 양에 의존하는 느낌이고 내용도 신통치 못하다. 밥보다 고추장이 많은 축제라면 시급하고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해당 축제별로 입장이야 다르겠지만 솎아낼 것은 과감한 결정을 해야 하고 힘을 보탤 것은 더욱 도와 줘야하는데 지금 서천의 축제 문화는 방향성을 잃은 지 오래이다.

물론 이같은 문제점은 비단 서천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때만 되면 각 지자체의 책상 속 서류를 꺼내듯 급조돼 만들어지는 축제들이 비싼 예산만 낭비하고 잊혀 가는 데 있다. 사실 서천의 경우 전어·꽃게와 주꾸미, 광어, 꼴두기·갑오징어 등 성공적인 먹거리 축제도 있지만 대다수 축제는 식상해 보이는 소재나 먹을거리 중심에 얽매이고 있어 지갑을 쉽게 열 관광객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지역축제에 대한 몸집을 줄여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줄어든 축제의 예산과 인력을 한 곳에 모아 축제다운 축제로 활성화 시켜야 외부 관광객도 주민도 한 데 어우러질 수 있다.

축제가 축제인 것은 참석한 모두의 재미나 흥이 일관되어야 한다. 그저 공무원이 때가 되어서 해야 하는, 그리고 마지못해 참석하는 지역축제는 진정한 축제라고 할 수 없다. 이제부터라도 모든 축제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구조조정을 거쳐 옥석을 가려내고 질과 양마저 풍부한 정말 축제다운 축제가 이어질 수 있는 축제 문화를 만들어 가길 당부해 본다. 겉보다는 내실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홍산관아에 서린 동학농민군의 원혼

사람이 곧 하늘이다(人乃天)
⑬부여지방의 동학농민혁명

지금의 부여군은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던 1894년에는 부여현, 홍산현, 석성현, 임천군으로 나뉘어 있었다. 부여지방에 동학이 언제 전래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다만 부여는 충청감영이 있던 공주에 접해 있었고, 공주에는 가섭암이 있어 해월 최시형이 이곳에 은거하면서 충청과 전라도지방에 동학을 포덕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1880년대 중반에는 부여에도 동학이 널리 전래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부여지방의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는 부여 유생 이복영이 남긴 〈남유수록〉을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다. 〈남유수록〉에 의하면 1894년 6월 말 무렵부터 부여 대방면에 집강소가 설치되었고, 집강소를 통해 주요한 지방 행정이 집행되었던 사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의 결과, 전라도지방에서는 각 군현에 집강소가 설치되어 농민 중심의 자치행정이 이루어졌다. 이때 전라도뿐만 아니라 충청지방에서도 집강소가 설치되어 운영되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부여 대방면의 집강소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부여지방에는 동학조직이 매우 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부여의 대표적인 접주는 이석보, 장봉한, 최천순 등이었다. 1894년 9월 최시형의 기포령이 떨어지자 부여의 동학농민군은 부여관아에서 무기를 탈취하고 무장하여 논산으로 향하였다. 논산의 동학농민군 주력부대와 결합한 부여의 농민군은 공주 우금티 전투에 참전하였다.

이밖에 유생 이유상은 부여에서 조직한 의병을 이끌고 전봉준을 만나 동학농민군과 합세하였다. 유생이던 이유상이 동학농민군에 가담했던 것은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고종을 볼모로 잡으면서 나라를 위협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상의 모습은 나라와 임금에게 충성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올바른 유생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당연한 결정이었다. 이후 이유상은 일제로부터 나라를 구하고자 했던 동학농민군의 선봉장으로 우금티 전투에 참전하였다.

공주 우금티 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이 패하자 동학농민군은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이때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서천에서 동학농민군이 크게 일어났다.

그러자 관군은 서천의 동학농민군을 치기 위해 서산군수 성하영에게 경리청군을 주어 파견하였다. 서천으로 향하던 경리청군이 부여에 이르자 부여에서는 동학군의 잔당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유회군이 조직되었다. 유회군은 경리청군을 도와 부여, 임천, 홍산을 거치면서 부여지방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들은 부여지방 곳곳을 뒤져 닥치는 대로 동학농민군을 잡아 죽였다. 그래서 지금도 홍산관아에는 그때 죽음을 당한 동학농민군의 원혼이 서려 있다.

/(사) 당진시동학농민혁명승전목기념사업회

충청남도청 www.chungnam.go.kr

공주 미르섬에 만개한 해바라기를 배경으로 한 여성이 사진을 찍고 있다. 가을의 절정인 이맘때, 미르섬에는 코스모스, 해바라기, 갈대, 핑크뮬리 등 온갖 가을꽃이 활짝 피어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는다. 사진제공/도민리포터 김보현

충남에서 만끽하는 '시월의 어느 멋진 날'

충남 가을 100배 즐기기

"눈을 뜨기 힘든 가을 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무얼 할까" 성악가 김동규가 부른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의 시작 구절이다. 어느덧 10월의 중순, 가을도 이제 절정이다. 연인, 가족, 친구들과 나서기에 더없이 좋은 계절, 가을 추억을 남길만한 충남의 명소들을 추려봤다.

'핑크뮬리' 배경으로 #인생샷

최근 SNS를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핑크뮬리. 꽃말은 '고백'이다. 그래서인지 연인들의 사진촬영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 충남에도 핑크뮬리가 한 가득 피어있는 '인생샷 맛집'들이 곳곳에 있다. 태안 청산수목원은 도내에서 제일 잘 알려진 핑크뮬리 명소다. 계절별로 갖가지 꽃들이 피어나는데 유럽의 정원을 컨셉으로 조경해 이색적인 풍광을 자랑한다. 가을에는 핑크뮬리와 팜파스를 주제로 축제도 열린다. 온통 분홍색으로 물든 핑크뮬리와 높이가 2~3m에 이르는 팜파스가 바람에 일렁이는 풍경은 신비로움 그 자체다. 외국에 온 듯 이국적인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 세계유산을 품고 있는 역사도시 공주도 핑크색으로 물들었다. 공주 미르섬에는 해바라기, 갈대, 코스모스 등과 함께 핑크뮬리 물결이 넘실댄다. 금강변을 따라 걸으며 가을정취를 만끽하기에 더 없이 좋다. 이밖에 당진 삼선산수목원, 아그로랜드(태신목장), 당진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핑크뮬리를 볼 수 있다.

●청산수목원 충남 태안군 남면 연꽃길 70
●공주 미르섬 충남 공주시 금벽로 368

노랗게 물들어가는 #은행나무길

가을 단풍의 대표주자는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다. 아산시 곡교천과 보령시 청라면 은행나무마을은 일렬로 늘어선 은행나무들이 장관을 이루는 곳이다. 아산 곡교천변 옆으로 조성된 은행나무길은 곡선으로 드리는 은행나무 터널이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는다. 천변으로는 유채꽃과 코스모스, 국화 등 가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가을 정취를 한껏 뽐낸다. 자전거를 대여해 은행나무 길을 따라 하이킹을 즐길 수도 있다. 보령 청라은행마을은 조선시대 양조장으로 사용된 한옥 고택을 중심으로 흐드러진 은행나무 단풍이 일품인 곳이다. 작은 마을에 3000여 그루가 넘는 은행나무가 장관을 이룬다. 그래서인지 가을에는 사진가들의 발길이 줄을 잇는다. 청라은행마을은 매년 10월 말에 은행나무 단풍을 주제로 한 마을축제를 열고 있다. 지난해 축제는 10월 27일~28일 이틀간 열렸으니 참고하자.

●청라은행마을 보령시 청라면 오서산길 150-65
●곡교천 은행나무길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502-3

청산수목원 팜파스

가을가을한 금빛 #갈대밭

가을의 대명사 갈대. 끝없이 펼쳐진 갈대밭에서 가을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다면 서천으로 떠나자. 서천 신성리갈대밭은 대한민국 4대 갈대밭으로 꼽힐 만큼 엄청난 규모를 자랑한다. 너비 200m, 길이 1.5km, 면적 10만여 평이 넘을 정도로 규모가 크며, 제방도로에 올라서면 드넓은 갈대밭이 눈 아래로 내려다보인다. 각종 교육기관의 자연학습장은 물론 전국 사진작가들의 촬영장소로 인기 있으며,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의 촬영장소로도 유명하다. 2㎞ 남짓한 갈대밭 산책길에는 박두진·김소월·박목월 등 서정시인들의 시를 써놓은 통나무 판자가 걸려 있다. 물가에 갈대가 있다면 산에는 억새가 있다. 서해의 등대라고 불리는 오서산은 가을이면 산 정상의 억새를 보이기 위한 등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오서산 정상 능선길을 따라 2km에 걸쳐 억새길이 이어진다. 10월 초부터 피기 시작하는 억새는 10월 중순부터 더욱 희고 풍성한 꽃을 피워내며 절정에 이른다.

●성리갈대밭 서천군 한산면 신성리 125-1
●오서산 홍성군 광천읍 담산리 1

우리동네 안 같은 #야경맛집

은은한 조명으로 둘러싸인 야경은 가을밤의 분위기를 더욱 운치 있게 만든다. 국내 최장 다리로 알려지면서 개통 직후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 예당호 출렁다리. 높이 64m, 길이 402m, 폭 5m의 현수교로 성인 3000명 이상이 동시에 통과할 수 있는 규모가 압도적이다. 특히나 400m가 넘는 출렁다리에 설치된 LED 조명이 화려하게 빛나는 야간에는 더욱 아름다운 자태를 뽐낸다. 출렁다리 주탑에는 전망대가 설치돼 있어 예당호를 한눈에 감상할 수도 있다. 예당호 주변에 즐비한 카페에서 야경을 즐기는 것도 좋다.

●예당호 출렁다리 예산군 응봉면 후사리 39

가을 단풍 구경은 #계룡산에서

계룡10경 중 제6경이라는 갑사계곡 단풍은 '춘마곡 추갑사(봄에는 마곡계곡, 가을에는 갑사계곡)'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단풍이 빼어난 곳이다. 5리숲 이라고도 부르는 갑사 진입로는 특히 장관이다. 갑사를 중심으로 철당간지주, 사리탑 등 불교 유적이 많다. 갑사에 이르는 길과 용문폭포 주위의 단풍이 빼어나며 갑사에서 금잔디고개에 이르는 울창한 숲도 가을이면 아름다운 단풍을 자랑한다. 10월 하순에 단풍이 절정을 이룬다. 동학사입구에 동학사 주위의 울창한 숲과, 남매탑에 이르는 길도 단풍이 아름답다. 관음봉, 쌀개봉, 삼불봉으로 이어진 주능선은 닭벼슬을 지닌 용의 형상을 하고 있다. 이 능선을 자연성릉이라 하는데 암릉과 암봉이 어우러지는 자연성릉 단풍 또한 중후하며 은은하다.

●계룡산 공주시 반포면 동학사1로 327-6

/김혜동 khd1226@korea.kr

예당호 출렁다리

청라은행마을

미르섬을 붉게 물들이는 핑크뮬리

서천 신성리 갈대밭

충청남도청 www.chungnam.go.kr

“우리가 얻은 이익은 다시 바다로 돌아가야 합니다”

더 행복한 마을
(25) 태안 병술만어촌체험마을

전국 1105개 공동체 중 최고
자연경관과 주민역량 빛 발해

편의·체육시설 개·보수 급선무
“일시적·조건부 규제완화 절실”

병술만 갯벌 체험장에서 바지락을 캐고 있는 체험객들

故 이진형 이장의 송덕비를 소개하는 정성준 계장

충남의 작은 어촌마을이 지난해부터 연달아 세 차례나 해수부 장관상을 수상해 화제다. 각종 경연에서 ‘전국 최고’의 평가를 받은 것. 꽃지해수욕장 주변의 작은 마을이었던 병술만공동체가 해수부가 주관하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중 최우수 공동체로 선정된 것.

행정구역상 안면읍 중장1리에 속하는 이곳에는 180가구에 331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그중 243명의 주민이 병술만공동체에 함께하고 있다.

다음 달이면 10년차를 맞는 어촌체험마을과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꾸려오는 동안 꾸준히 귀어인을 유도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확장시킨 것이 이번 수상의 배경이라고 말하는 정성준 어촌계장.

마을의 주요품목은 바지락, 맛조개, 가무락, 해삼, 전복 김 등으로 주민 대부분이 농업과 어업을 겸하며 체험마을 운영도 겸한다.

연중 운영되는 이곳의 대표체험은 바지락과 맛조개를 캐는 갯벌체험으로 연간 5~6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다. 이와 함께 체험마을 시작과 함께 운영해 온 캠핑장도 앞으론 서해의 너른 갯벌과 바다를 마주하고 등 뒤론 안면송 숲이 감싸고 있는 입지상 연간 1만 여 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됐다.

정 계장은 “우리가 얻은 이익은 다시 바다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민들이 이익을 분배하는 건 나중의 문제예요. 연간 1억 원 정도의 바지락 종패를 바다에 뿌리며 지속가능성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이번에 해수부에서 받는 상금도 갯벌에 차광막을 설치하고 채취한 바지락을 옮길 트랙터를 구입하는 등 미래를 위한 투자로 사용할 예정입니다.”라며, 인기 비결을 꼽았다.

하지만 인기가 높아질수록 정 계장과 주민들의 근심도 늘어만 간다.

“갯벌체험 중심이다 보니 체험 후 씻을 수 있는 샤워실과 화장실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간은 노후됐어요. 도나 군에서는 자연경관지구엔 화장실 설치가 어렵다고 하는데, 조금 피해서 개발촉진지구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을 늘리거나 개보수를 하려면 도와 군에서 각종 규제들을 들며 허가를 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요즘 사람들이 관광의 최우선 조건으로 쾌적함과 안락함을 찾는 경향이 많은데, 현재의 시설들로서는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을 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번에 자율관리 최우수 공동체로 선정된 건 우리의 영광이면서 태안군과 충남도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전국 1105개 자율관리 공동체 중 충남을 대표해 상을 받은 거죠. 그 와중에 행정의 도움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젠 군과 도도 우리가 대표로 더 힘을 낼 수 있게 각종 규제와 제약들을 조건부로라도 풀어주면 좋겠습니다.”

최근 캠핑족이 늘면서 병술만캠핑장에도 꾸준히 손님이 늘고 있다. 한 번에 200여 동의 텐트를 동시에 칠 수 있고, 마을 자체적으로 텐트를 대여해줘서 체험을 왔다 일정을 바꿔 하루 머물다 가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마을이 워낙 깊숙이 위치한 탓에 자연경관 외엔 특별히 여가거리가 없다 보니 아이도 어른도 지루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정 계장은 관광객 체류시간을 늘리기 위해 얼마 전 인근의 빈 땅을 돋워 간이 족구장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마저도 행정규제 대상이 되어 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 서운함이 든다고 한다.

“지금까지 마을이 계속해서 발전해 올 수 있었던 데는 주민들의 노력과 의지뿐 아니라, 행정의 도움과 수고도 컸습니다. 하지만 행정으로 인한 절차상의 문제와 어려움은 주민들에겐 여전히 숙제입니다.”

정 계장은 병술만을 찾는 사람들 누구나 바다와 해송의 품에서 안면(安眠)이란 이름 그대로 편안히 쉬었다 갈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란다고 한다.

/손유진 syj0319@korea.kr

녹각영지버섯 베트남 수출 ‘고소득’

철갑마루 김종연 대표
배트남 입소문 매출 쑥쑥

[청양]녹각영지버섯을 재배해 베트남에 수출하는 등 고소득을 올려 화제다. 영농조합법인 칠갑마루 김종연(청양군 정산면 마치리) 대표다. 김 대표는 지난해 국외, 특히 베트남에 녹각영지버섯을 판매, 1억 원의 매출을 올려 미래 고소득 대체 작물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김 대표는 “처음 몇 년간 녹각영지로 수익을 내지 못했다. 우리나라 일반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버섯이라 전국적으로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칠갑마루 김종연 대표 부부

김 대표는 녹각영지버섯을 표고 대체 작물로 선택, 시장을 길게 보고 재배기술 개발과 고품질 버섯 생산에 힘썼다.

김 대표는 녹각영지버섯은 베트남에서 인삼과 더불어 인기가 많고 우리나라보다 두 배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후 박씨가 직접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하기 시작했다. 점차 입소문까지 퍼져 억대의 매출을 올릴 수 있었던 것.

그는 “표고버섯 대안으로 찾아낸 것이 녹각영지버섯”이라며 “관리만 잘하면 표고보다 재배하기 쉽고, 가격도 더 좋게 받을 수 있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작물”이라고 했다.

김홍영/청양신문
khy@cynews.co.kr

“공주에 무령왕 동상 건립하자”

2021년은 무령왕릉 발굴 50주년

[공주]백제 중흥을 이끈 공주의 역사 인물인 ‘무령왕 동상’을 건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는 지난 9월 30일 저녁 백제문화제 고마촌 토크콘서트에서 윤용혁 공주대 명예교수가 제안해 공감을 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윤용혁 교수는 “그동안 무령왕릉의 유적과 유물에만 치중한 나머지 무령왕 인물을 조명하는 데는 소홀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오는 2021년은 무령왕릉 발굴 50년이자 무령왕이 중국에 보내는 국서에 ‘갱위강국(更位强國)’을 선포한 지 1500년이 되는 해”라며 무령왕 동상을 건립하자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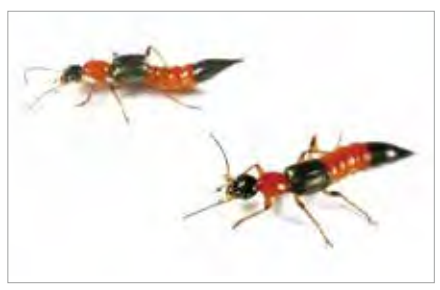
신용희/금강뉴스
s-yh50@hanmail.net

무령왕 표준 영정

당진에 화상벌레 출몰
닿기만 해도 통증

[당진]화상벌레〈사진〉로 추정되는 벌레가 당진에 나타났다. 당진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뉴스에서 본 화상벌레가 집에 있는 것 같다는 게시 글이 올라와 해당사진을 당진시보건소에 문의해 본 결과 화상벌레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화상벌레는 지난 1일 전북 완주의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처음 발견됐다.

정윤성/당진신문
psychojys@daum.net



한성준 한영숙 심화영, 전통춤 현대화 시도

새로 배우는 충남학(21)
충남의 근대 문화 예술

한성준이 전통춤을 추고 있다.

근대문화예술은 조선후기 이후 일제강점기에 전개된 문화예술을 말한다. 근대 문화예술은 무용, 음악, 미술, 문학 분야에서 예술가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었다.

근대의 충남 무용은 전통춤의 현대화를 시도한 작업이 있었다. 바로 한성준과 한영숙 그리고 심화영이다. 한성준은 전통춤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춤을 만들어냈고, 전통춤을 무대 양식화하였다. 한영숙은 할아버지 한성준으로부터 춤을 배웠고,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제40호 〈학춤〉 보유자로 지정되었다. 심화영은 서산 고유의 특색을 지닌 승무보유자로, 충남무형문화재 제27호로 지정되었다.

근대의 충남음악은 공주에 선교사들이 학교와 교회를 세우면서 서양음악이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공주영명학교(현 공주 영명중·고교)는 유명한 음악가들을 배출하였는데, 한국오페라운동의 개척자인 이인선, 한국음악협회 초대이사장을 지낸 이유선, 대중가요 작곡가인 김해송, 이화여자전문학교 음악과 교수를 지낸 안기영 등이다.

근대의 충남미술은 서양화가의 경우 지역출신인 이마동, 장욱진, 이종무 등이 중앙화단에서 주로 활동하였고, 전통화단의 경우 충남미술사에 큰 족적을 남긴 화가들이 활동하였는데, 박승무와 고암 이응노 등이 있다.

근대시기에 충남지역에서 활동했던 문인으로는 정훈을 거론할 수 있다. 1946년 박희선, 박용래 등과 더불어 동인지 〈동백〉과 대전 최초의 잡지인 〈향토〉를 창간하였고, 1951년 11월 〈호서문학회〉를 창립하였다.

근대시기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전개되고 있는 충남의 문화예술은 충남만의 예술양식적 특징을 갖추고 있진 못하나, 시간이 지나 문화 재배열 과정을 거친 후 미래에 충남 근대문화예술의 양식적 고유성을 갖추게 될 것이다.

문화예술은 예술가의 전유물이 아닌 시민 모두의 문화예술로 변화해가고 있다. 시민이 관람자가 아닌 생활 속에서 누구나 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누리는 방식인 문화복지 차원으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은 사회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충남 각 지역 간 사회적 불평등과 격차를 줄이는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문옥배(당진문예의전당 관장 당진문화재단 사무처장)

충청남도청 www.chungnam.go.kr

충남 농특산물 해외 수출 잰걸음

'예산황토사과' 베트남·러 인기
영양만점 '청양 밤' 美日 수출길
당진 쌀·양파 해외시장 진출 활발
천안 배, 연말까지 4500톤 선적

지난 4일 청양 밤. 미국과 중국 수출 기념식을 갖고 있다.

농·특산물 올해 해외시장 진출이 활발하다.

예산황토사과는 지난 9월 2차례에 걸쳐 20톤을 러시아에 수출한데 이어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로 총 80톤을 수출했다. 예산황토사과는 러시아 16톤, 베트남 5톤 등 사과 21톤과 베트남에 수출하는 사과주스 4톤이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과 베트남 하노이 등 지에서 판매될 예정으로 현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예산황토사과에 대한 호평은 대만과 미국 등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청양 밤'도 미국, 일본 수출길에 올랐다. 지난 4일 정산농협(조합장 김봉락)은 장평면 소재 수출특화단지에서 62톤(1억2000만원) 규모의 밤 선적작업을 마쳤다. 청양 밤은 일교차가 심한 지리적 조건 속에서 생산돼 알이 굵고 육질이 단단해 저장성이 뛰어나며 당도가 높다.

당진 지역에서도 농·특산물의 해외시장 진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해나루쌀을 비롯해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파까지 수출에 탄력을 받고 있다.

당진쌀은 지난 2월 우강농협(조합장 김영구)이 10톤을 호주에 수출한데 이어 지난달에도 15톤이 호주에 수출됐다. 또한 미소미(대표 이태호)도 올해 상반기 싱가포르와 몽골에 총40톤의 당진쌀을 수출했으며 지난 달 8일에는 싱가포르와 두바이에 각각 10톤과 6톤의 당진쌀을 수출하는데 성공했다. 당진쌀 수출 물량은 지난 8월 기준 81톤에 이른다.

국내 양파가격 폭락의 영향으로 적극적인 해외시장 공략에 나선 당진 양파의 경우 이달 9일 베트남에 24톤을 수출하는 등 405톤이 해외로 수출됐다. 양파 수출 국가는 홍콩과 태국, 베트남, 대만, 말레이시아. 러시아에도 수출되면서 양파 가격 하락에 따른 고충도 덜었다.

천안의 거봉포도는 지난달 6일 호주를 시작으로 미국과 캐나다 등으로 뻗어 나가고 있다. 호주, 미국, 캐나다로 수출하는 포도는 캠벨과 거봉포 수출 선적 물량은 15톤이며, 올해 40톤의 수출실적을 올리고 있다.

2019년 대한민국 소비자 선호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하늘그린 천안배'는 미국 등 20개국에 연말까지 4500톤(1500만불)을 수출된다.

천안배 수출단지는 1986년 국내 최초로 미국 수출시장을 개척한 이래 북미, 유럽, 동남아 등으로 넓혀나가며 34년의 수출역사를 쓰고 있다.

/지역종합·도정신문팀

"인간이 노력하면 자연도 변화"

354년 전 과거시험 답안지 공개
'사람의 힘으로 조화를 빼앗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응시생 답변

[홍성]홍성군 홍주성역사관은 354년 전의 과거시험 답안지〈사진〉를 공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답안지는 지난 9월 말 평택임씨 송암공파 종친회에서 보관 중이던 임유의 과거시험 답안지를 기탁 받은 것.

이번 기탁유물은 조선 현종 6년(1665)에 임유가 과거시험에 응시해서 제출한 답안지로, 흔히 시권(試券)이라고 불리는 문서다. 현종이 온양온천(현 아산시)에 행차한 것을 기념하여 충청도민을 대상으로 치러졌던 과거시험으로, 문과 시험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조화를 빼앗을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人力可以奪造化論)'였다.

임유는 이 시제에 대해 문답식으로 답변을 작성하여 '차상(次上)' 등급을 받았다. 임유는 '조화'라는 개념을 '자연의 조화'와 '인간이 만들어낸 조화'로 구분하여,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한쪽이 이기고 지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간이 노력하면 자연이 내려준 조건을 변화시키고 자연의 조화를 인간의 조화로 감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여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였다.

평택임씨 집안은 대대로 홍주(홍성)와 깊은 인연을 맺어 왔다. 군 관계자는 "귀중한 유물이 홍주성역사관에 기탁된 만큼 빠른 시일 내로 보존처리를 거쳐 관람객들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성군 제공

계룡산 수통골 탐방로 개설

[계룡]국립공원공단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는 계룡산 수통골네이처센터~화산계곡 왕복 3㎞ 구간에 행복탐방로를 조성해 개통했다.

이번 행복탐방로 조성으로 장애인과 노약자 및 임산부 등 교통 약자 보행을 위한 계단 등 장애요소가 제거돼 풍경을 편안하게 누릴 수 있도록 탐방여건을 개선된 것.

이번 탐방로 개설에는 탐방객과 자원 활동가 등 100여명이 일손 나눔에 동참했으며, 자원 활동가의 재능기부로 탐방로 조성을 도왔다. '수통골 행복탐방로'는 10월 7일 개통됐다

임동숙/금강뉴스
ydsrosa@naver.com

외암민속마을 짚풀문화제 개최

19, 20일 짚과 풀 주제로
공예품·탈곡체험 등 다채

외암민속마을

[아산]제20회를 맞이하는 아산 외암민속마을 짚풀문화제가 오는 19일과 20일 아산시 송악 외암민속마을에서 개최된다.

제20회 외암민속마을 짚풀문화제는 '조상의 슬기와 숨결을 찾아서'라는 슬로건 아래 '짚과 풀'을 주제로 공연과 체험 등 다양한 체험행사와 공연으로 풍성하게 펼쳐진다.

축제기간 중에는 짚과 풀을 이용한 공예품이 전시되고 떡메치기, 탈곡체험, 가마니 짜기 등 외암민속마을과 어울리는 특별한 코너가 준비됐다.

특히 전통문화 재연 프로그램을 축제의 핵심 콘텐츠로 특화 구성해 조선시대 전통 성년례, 혼례, 상례, 제례, 과거시험 등 옛 모습 그대로 재연한다. 계란꾸러미 만들기, 떡메치기, 짚풀 놀이터, 천연염색, 메기잡기, 다슬기잡기 등 체험과 놀거리를 경험해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마을 내 돌담길 사진전시, 바람개비 체험존 운영 등으로 마을전체를 축제의 장으로 꾸몄다.

이준봉 외암민속마을 보존회장은 "민속마을 돌담길을 천천히 걸으면서 깊어져가는 가을의 소중한 추억을 만나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500여 년 전 부터 형성된 외암민속마을은 국가지정 중요민속문화재(236호)로 지정된 마을로 상류층가옥과 서민층가옥이 조선후기 중부지방향촌모습 그대로 잘 보존돼 있다.

김명기/아산시사신문
kmkki313@naver.com

"당신 예뻤던 거 지금도 안 잊어"

50년 세월 김용순·최순환 부부
미소도 닮아간 노부부 금혼식

금혼식을 올린 김용순(80세), 최순환(73세) 부부

[당진]"부부에게 사랑은 서로 의지하고 마음 맞아 살아가는 거지! 손잡고 뽀뽀해야만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 안혀~ 그렇게 50년을 살았고 남은 인생도 그리 살아갈거유"

지난 9월 25일 당진시여성단체협의회에서 마련한 '동행 50년 행복 금혼식'에서 리마인드 웨딩식을 올린 김용순(80세), 최순환(73세) 부부. 이들 부부는 1969년 가족 중매로 부부의 연을 맺었다.

최순자 할머니는 "스물 세살에 뭘 알겠어. 부모님이 하라니까 옛날에 하던 결혼식을 올린거지. 그때는 가마타고 가다가 가마가 시냇물에 빠져서 물에 젖은 게 그땐 어찌나 속상하던지"라며 회상했다.

김용순 할아버지는 "난 그때 당신 이뻤던 거 아직도 기억나"라고 쑥스럽게 끼어든다.

최 할머니는 "드레스는 남들만 입는다고 생각했는데 꿈만 같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슬하에 2남2녀를 둔 부부는 금혼식 당일에 자녀들이 모두 모여 축하하고 마음 써준 것에도 고마워했다.

이들 부부는 "아들 딸 내외가 바쁜데 모두 참석해서 신경 써주니 든든했어"라며 "늦었지만 결혼사진도 남기고 1박2일로 신혼여행도 다녀오고 좋은 추억 만들어서 좋았다"며 "살아온 세월만큼 앞으로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면 그걸로 된 거야"고 행복감을 전했다.

50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내며 미소까지도 닮아 버린 김용순·최순환 부부. 이들의 깊어진 주름의 깊이만큼 서로 의지하며 오랫동안 행복하길 바라본다.

배창섭/당진신문
bcs7881@hanmail.net

천안에 첫 청년셰어하우스 등장

24명 모집, 월 10만원 부담

[천안]천안시는 지역청년을 위한 첫 청년셰어하우스를 조성하고 입주자 24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역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을 임차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청년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청년셰어하우스'를 조성했다.

천안형 청년셰어하우스는 2인실로 구성된 12개 주택이며 성정동 2개소, 두정동 3개소, 쌍용동 3개소, 신방동 4개소가 있다. 입주 선정자들은 희망지역을 선택할 수 있고 방 배정 협의도 가능하다.

거주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최대 1년이며, 사용료는 1인당 월 10만 원이다. 관리비와 전기·가스요금 등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모집 대상은 천안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천안 소재 직장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18세~34세 무주택자이다. 월 소득은 올 2분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248만2356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 필요서류를 갖춰 시청 교육청소년과 대학청년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셰어하우스는 다수가 한 집에 살면서 침실은 따로 사용하고 거실과 화장실 등을 공유하는 주택이다.

/천안시 제공

청양군, 경제·취미동아리 10곳 선정

[청양]청양군이 청양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센터장 노승복)를 통해 '소액동아리 지원사업'(이하 삼삼오오)을 공모, 경제 및 취미동아리 10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경제동아리는 ▲위로숲 ▲예쁜채소 출하동아리 ▲배우고 가게 ▲영산암 농산물공동판매장이고, 취미동아리는 ▲청양알려유 ▲청춘씨드 ▲징검다리 ▲원동카네이션 ▲공감학교 ▲생각하는 책집이다.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삼삼오오 사업은 5인 이상 경제동아리나 3인이상 취미동아리 참여자들이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지역 리더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추진계획부터 집행, 정산 과정은 동아리 스스로 정하게 된다.

이번 공모에는 모두 34곳의 공동체가 응모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으며, 선정된 경제동아리 4곳에 각 300만원, 취미동아리 6곳에 각 2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이순금/청양신문사
ladysk@hanmail.net

www.chungnamgov.kr 충청남도청

“송가인 노래 ‘스밍·떼창’은 기본이쥬~”

박호철 당산초등학교 교감

팬카페 충남서부지역장 맡아

“송~가인이어라~”

중년의 교감 선생님의 가수 송가인에게 푹 빠졌다. 송가인의 무대를 보고 또 보고, 같은 콘서트를 두 번 세 번 가도 매번 가슴이 쿵덕쿵덕 뛰고 설렌다는 당산초등학교 박호철 교감이다.

현 교감이자 송가인 팬카페 어게인의 충남서부지역장을 맡고 있는 그의 닉네임은 ‘릉삼시’다.

미스트롯에서 ‘한 많은 대동강’을 노래하는 모습을 송가인을 보고 그날로 가입해 팬이 되었다는 그는 생생한 공연후기작성은 물론 대전, 세종, 충청 회원들과 정기모임을 갖고 회원들의 선출로 지역장까지 맡게 되었다.

“공연 후기는 공연을 오시지 못하는 회원 분들을 위해서 작성하기 시작했죠. 재밌기도 하고, 그렇게 제 후기를 봐주시고 고맙다며 수제도마를 선물해 주는 회원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어색하기만 했지만 이제는 송가인의 공연에는 빠지지 않는 든든한 조력자로 활동하고 있다.

공연이 있는 날이면 아침부터 부스를 설치하고 회원들의 간식, 공연 뒤풀이 장소 등을 섭외하고 안내, 홍보, 응원 등을 준비한다.

팬미팅에서 찍은 송가인과 어게인 회원들. 앞줄 오른쪽에서 네번째가 박호철 교감이다.

전국에서 어게인의 회원 분들이 방문해주시기 때문에 각 지역장들은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회원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준비한다. 요즘 아이들 말로 떼창을 하면서 즐겁게 공연을 기다리는 거다.

아침 출근길이면 여느 아이돌의 팬처럼 ‘스밍(스트리밍)’이 일상이다. 같은 노래를 무한반복으로 들어도 질리는 줄 모르게 즐거운 생활을 보낸다는 박 교감은 주말 공연 일정으로 행복한 비명을 지른다고 했다.

아내과 함께 어게인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더 즐겁다는 박 선생님은 송가인이라는 내 인생의 첫 가수를 만나 변화가 생겼다고 했다.

“평소에 트로트에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송가인의 노래는 마치 눈 덮인 함박눈의 배경처럼 포근함이 느껴지면서 심금을 울리는 노래였어요. 덕분에 어게인을 통해 세상을 보는 시선이 긍정적으로, 더 따뜻하고 깊이 있게 보려는 마음이 생겼죠”

배길령 / 당진신문
skyseaone@naver.com

“지친 감정 쉬어 가세요”

더 행복한 사회적기업

다빈치건강놀이심리협동조합

상담사·사회복지사로 구성

“사람은 다방면에 천재성이 있어요. 가능성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는 게 상담사죠”

2017년 여성창업스쿨을 통해 9월 상담소를 열게 된 최익순 대표. 현재 1명의 직원과 8명의 상담치료사들로 구성된 다빈치건강놀이심리협동조합(이하 다빈치)은 법인협동조합으로 심리상담센터는 처음이다.

프랜차이즈화 되어있는 상담이 아닌 상담사와 사회복지사, 후원자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은 처음이다.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경쟁으로 무뎌진 그들의 가치를 발견하는 중요한 일은 사회적 기업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다빈치는 수익창출의 구조에서는 한없이 열악하다. 학교에서 인권, 자존감, 긍정 박수 등의 강의와 컨설팅을 맡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기란 쉽지 않다. 최 대표는 여러 지자체의 사업 공모에 도전하고 있다.

“높은 수익을 내기는 어려운 구조죠. 하지만 우리의 역할이 더 낳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 믿음으로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새로운 기회가 생기면 또 도전하죠”

다빈치건강놀이심리협동조합의 최익순 대표(좌)와 모래놀이 최익희 선생님(우)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난 7월 지정된 다빈치의 사회적 기업으로의 목표는 ‘사람을 소중히’다.

소외된 사람들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다빈치의 목표처럼 다빈치건강놀리심리협동조합은 기업, 학교, 가정, 청소년, 부모, 개인 등 다양한 장소와 역할 등에서 겪어 내야하는 사람들의 지친 감정을 보듬는 역할을 하고 심리와 건강, 놀이와 일의 균형이 삶을 이루는데 큰 핵심이다.

현재 다빈치에서는 어린이 교육과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있다. 또 취약계층 아이들의 상담과 결혼이주민 여성의 교육을 사회서비스로 맡고 있다.

더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소통의 매뉴얼을 만들고 동기의 씨앗을 마음 깊숙이 심어 많은 소중한 사람들과 더 좋은 세상을 만들고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다는 최 대표와 다빈치 선생님들은 오늘도 매일 희망 주문서를 쓴다.

배길령/당진신문
skyseaone@naver.com

美청소년, 금산 간디학교서 만남을 잇다

미국 대안학교 교사·학생 방문

국제민주교육회의 만남 계기

첫 만남은 단순했다, 작년 인도에서 열린 국제민주교육회의(IDEC)에서 우연히 서로 만났다. 더듬거리는 영어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헤어짐이 아쉬웠다. 한국에 돌아와 누군가가 제안했다. “개네들이랑 화상 통화해보면 어떨까?”

다시 만나 보면 재미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미처 예상치 못한 변수. 화상통화의 장벽은 시간이었다.

한국의 충남 금산과 미국의 오리건주 포틀랜드는 16시간의 시차가 존재했다.

이걸 어쩐다. 서로 번갈아가며 통화 시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생각했다. 한 번은 아침 일찍 통화 하거나 또 한 번은 저녁 늦게 통화를 했다. 좀 피곤하긴 했지만 성공이다. 그렇게 통화가 연이어졌다.

미국 포틀랜드 대안학교 학생과 금산 간디학교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화면으로 다시 만나니 정말 반가웠다.

‘너 지금 뭐하는 중이었니’, ‘오늘은 뭐하니’ 등 일상을 나누었다. 신기했다. 궁금한 점이 자꾸 더 생겼다. 더듬거리는 영어로는 대화가 깊이 안 된다 생각돼 공부도 더 하게 된다.

그러다 진짜로 다시 만날 줄은 몰랐다. 미국 VFS 교사 1명과 10대 6명이 금산 간디학교에 온 것이다. 화상에서 만났지만 실제로 다시 보기는 오랜만이다. 포옹이 이어진다.

VFS(Village Free School)는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있는 대안학교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60여 명이 함께 있는 작은 학교다.

자유로운 공동체를 지향하며,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보장한다. 외국에 이렇게 멀리 나온 게 처음이란다. 피부색과 언어가 다를뿐 참 비슷하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려는 자세, 자기표현을 신중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하려는 태도가 많이 닮았다.

일주일이 참 빠르다. 헤어지는 이별의 자리, 서로 포옹하며 눈물을 흘린다. 우리는 꼭 다시 만날 것이다. 각자의 학교와 울타리를 넘어서. 만남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열어 갈 것이다.

길봉석/금산신문
gsnews4700@naver.com

軍문화축제 북한음식 ‘호응’

쉼떡·국수·나물 등 제공

[계룡]2019계룡세계군문화축제 기간 동안 북한음식문화체험 무료시식 코너가 마련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우리 마을의 작은 통일이 미래의 통일한국’ 등의 슬로건을 내걸고 마련된 북한음식문화체험 무료시식코너가 2019계룡세계군문화축제 행사장에 마련돼 관람객들로부터 인기를 모았다.

북한음식문화체험 무료시식 코너는 북한이탈주민들로 구성된 통일음식문화연구원 회원들이 북한방식으로 북한 쉼떡, 북한 유부초밥, 북한식 국수와 나물 등의 10여 가지 북한 음식을 직접 만들어 코너를 찾은 관람객들에게 제공했다.

통일음식문화연구원 장유빈 원장(함경북도 온성군 출신)은 “북한사람들은 먹을 게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우리가 자랄 때는 먹을 음식이 많았다”며 “한국 유부초밥은 새콤달콤한 맛이 있지만, 북한도 유부초밥이 있는데 맛은 담백하다. 음식 맛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일은 밥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믿음으로 공감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전철세/계룡일보사
seran777@naver.com

사서들의 서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로버트 치알디니 지음, 황혜숙 옮김 / 21세기북스 / 2019〉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이 단순하면서도 고차원적인 문제는 사람들의 시선과 마음을 지속적으로 빼앗고 있는 것 같다. 심리학이라는 이 학문은 지금도 명확히 정의내리기 어렵지만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무슨 마법과도 같아 보이니까.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군 시절에 처음 설득의 심리학의 내용을 보고 당장 써먹어 보고 싶은 마음에 저녁부터 내용들을 실제로 응용했던 일화이다. 이렇듯 치알디니의 심리학은 모르는 사람이 봐도 몰입시키는 흡인성을 가졌다. 설득의 심리학 제1편에서 등장하는 6가지 법칙들은 특별한 내용은 아니지만 사람과의 대화와 만남에 필요한 큰 스킬들을 전수해준다.

마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지침서 같기도 해서 굳이 심리학이라는 꼬리표에 거부감을 느끼기 보다는 가볍게 보아도 좋다.

상호성의 원칙, 일관성의 원칙, 사회적 증거의 원칙, 호감의 원칙, 권위의 원칙, 희귀성의 원칙 각각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상호성의 원칙은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받으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게 돌려줘야 한다는 압박을 설명한다.

일관성의 원칙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한 번 정해지면 계속 그것을 유지하려는 현상을 설명한다. 사회적 증거의 원칙은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판단할 때 기존에 사회나 다른 사람들이 했던 것을 보고 판단하는 현상을 설명한다.

호감의 원칙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싫어하는 무언가라도 거리낌 없이 하는 현상을 설명한다. 권위의 원칙은 인간의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을 설명한다.

희귀성의 원칙은 희소성에 관한 우리의 집착을 설명한다, 이렇듯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는 내용을 저자인 치알디니는 여러 사례들과 함께 친절하고도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다.

사회의 일원으로 존재하면서 가장 힘들고 답답한 것이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을 때 인 것 같다. 그럴 때면 무턱대고 화를 내거나 좌절하기보다 설득의 심리학을 한 번 읽어보는 것은 어떨까?

방 승 창
충남도서관 사서

“평생교육진흥원, 관리 역할 집중해야”

행정자치위원회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공휘)는 315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자치행정국 소관 9개 안건을 심사했다.

의원들은 이날 2020년도 기조실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영우 의원(보령2)은 “진흥원이 권역별로 묶어 시민대학을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며 “예를 들어 보령을 중심으로 시민대학을 운영하면 청양이나 서천 지역 주민들은 참여하기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흥원은 조정과 관리 위주로 담당하고 시군에서 추진하는 업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한영신 의원(천안2)도 “진흥원의 업무를 보면 시군에서 하는 일과 크게 구분되지 않는다”며 “시군 단위에서 추진 중인 업무를 지원해주고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등 전반적으로 큰 단위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안장헌 의원(아산4)은 “도가 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하고 있는 만큼 도 현안과 관련된 연구결과물을 많이 배출해야 한다”며 “내년에는 우리 도정 현안과 밀접한 과제를 선정해 필요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조길연 의원(부여2)은 “출연계획안은 사전에 출연여부만을 결정하는 과정”이라며 “실제 예산편성과정에서 출연계획안과 과도한 차이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공휘 위원장(천안4)은 “충남의 지역혁신 사업과 관련해 대전이나 타 지역에 있는 대학들보다는 도내 국공립 대학 위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행자위는 이날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대학생 단시간 근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0충남콜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원안 가결했다.

한편 행자위는 지난 4일 서산의료원 간호기숙사 신축부지, 충남 광역먹거리 통합지원센터와 대천항 관공선 선박근무자 통합사무실 건립부지를 잇따라 방문해 재산취득 등 계획 전반을 점검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8일 충남서울학사 공사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공사 진행 현황을 점검했다.

충남아기수당→행복키움수당 명칭 변경

문화복지위원회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는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문복위 회의에서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5개 안건을 심사했다.

문복위는 이날 중앙정부 권고에 따른 집행부 요구를 수용, ‘충청남도 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충남아기수당’ 명칭을 ‘행복키움수당’으로 변경키로 했다.

또 ‘충청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논의를 거쳐 수정 가결했다.

김연 위원장(천안7)은 “조례가 시행되면 퇴소아동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연령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퇴소아동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태로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운영 의원(아산2)은 조례안 심사에서 “내용 중 문화화 예술, 체육 분야에 대한 지원 내용이 빠져 있다”며 관련 내용 추가를 요구했다.

의원들은 이날 공공의료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언도 쏟아냈다.

정병기 의원(천안3)은 “말기암환자나 임종이 아닌 와상장애, 근육병을 앓는 환자도 기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형 호스피스 확대 등 함께 돌봐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한태 의원(보령1)은 “공공의료 확대와 제도·경영개선, 고객만족도 등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며 “시설과 장비현대화 부분은 기준안에 입각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영 의원(예산2)은 권역별 4개 의료원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사업을, 김옥수 의원(비례)은 간호업무 경감을 위한 환경개선 전산화 부분 사업의 확대를 각각 요구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8일 제100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을 방문해 충남 선수단을 격려했다.

충남일자리진흥원 초기 안정화 주문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4일 제315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일자리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20년 경제통상실 출연계획 등 5개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김영권 의원(아산1)은 “일자리진흥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공공기관과 인력만 늘리려는 것 아니냐는 염려가 많다”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와 공정·투명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명숙 의원(청양)은 “진흥원 인력채용 시 충남의 상황을 잘 아는 지역인재 채용이 필요하다”며 “일자리사업이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정부 중심으로 전환되는 만큼 도와 시·군 실정에 적합한 일자리사업을 발굴·추진해 달라”고 조언했다.

이밖에 양금봉 의원(서천2)은 “베트남 하노이와 인도 뉴델리에 설치 예정인 해외통상사무소에 대한 엄격한 성과평가 기준을 수립해 과거와 달리 성과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득응 위원장(천안1)은 “경제진흥원에 대한 출연예산 59억 9300만 원 중 청사 현대화 사업이 20억 원으로, 건물 개보수 예산이 지나치게 높다”며 “대내외 힘든 경제여건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목소리를 해소할 수 있는 사업 편성에 귀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경위는 이날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충청남도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장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수정 가결했다.

이어 지난 7일에는 2차 회의를 열고 ▲충청남도 쌀가공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통과시켰고 ▲충청남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해 가결했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8일 충남도·부여군 관계자들과 함께 불법폐기물이 방치된 초촌면 일대 공터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대책을 논의했다.

당진항서 당진땅 수호 결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위원장 장승재)가 당진항에서 당진땅 수호 결의를 다졌다.

안건위는 지난 8일 당진항 서부두를 방문해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 대책위원회’ 박영규 공동위원장으로부터 당진항 매립지와 관련한 소송 진행사항 등을 청취하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위원들은 당진·평택항 공유수면에 조성된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사법기관의 최종 판결이 연내 나올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보충서면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장승재 위원장(서산1)은 “2016년 10월 13일 헌재 권한쟁의 심판 첫 변론 이후 올해 9월 17일 2차 변론이 있었다”면서 “재판관 관심사항과 논리를 보강한 보충서면을 준비하고 대법원 현장검증 시 대응에 철저를 기해 당진땅을 꼭 수호하자”고 강조했다.

이계양 의원(당진)은 “주민들은 1500여 일 넘게 촛불 집회를 이어가고 있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며 “금년 중 헌재에서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도민의 열망대로 충남땅을 수복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의원들은 이날 당진항 개발 방향과 신평~내항간 항만진입도로 건설, 제4차 항만기본계획(2021~2030) 주요 반영 요청사업 계획을 청취하고 당진항을 제철·제강 전용항에서 상업·일반화물 등 물류항만으로 육성 노력도 주문했다.

이어 충남기념물 제145호인 합덕성당과 제70호인 당진합덕제를 방문해 합덕제 생태관광체험센터 조성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기념물 관리 실태와 개선 방안 등 의견을 수렴했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8일 충남도·부여군 관계자들과 함께 불법폐기물이 방치된 초촌면 일대 공터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대책을 논의했다.

교육시설 건설공사 안전기반 구축

교육위원회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인철)는 지난 4일 1차 회의를 열고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등 모두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교육위는 조철기 의원(아산3)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과 홍기후 의원(당진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두 조례안이 시행되면 교육기관 건설공사의 품질·안정성 향상과 단위학교 자치활동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위는 또 충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 했다.

오인철 위원장은 "오늘 심의·의결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이 교육기관과 단위학교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지난 7일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충남 고등부 선수단을 격려했다.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7일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충남 고등부 선수단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유학년제·방과후학교 개선 모색

공교육강화 특별위원회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공교육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10일 특위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자유학년제와 방과후학교, 인성교육 분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참여수업과 진로탐색 활동 등 체험 중심으로 운영 중인 자유학년제의 경우 중간·기말고사 미시행으로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업성취도 하락을 걱정하는 상황이다.

특위 위원들은 이자리에서 학부모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내실있는 자유학년제 추진을 위해 학생 학업과 성장발달에 대한 명확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옥동 의원

방과후학교에 대해선 수요자가 원하는 시기에 만족도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생 특성을 반영한 강좌를 마련하고 개설시기를 늦어도 3월 초까지 맞춰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성교육을 편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옥동 위원장은 "최근 교육부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안을 발표하고 2028학년도 중장기 대입제도 전면개편을 목표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며 "특위도 이에 발맞춰 교육전문가와 관계자, 학부모 등 당사자 의견을 수렴해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 한층 더 청렴해진다

의원행동강령 조례 대폭 개정
청탁금지법 '사각' 보완 핵심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일 회의를 열고 김형도 위원장(논산2)이 제안한 '충청남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민간부분에 대한 청탁 규제 등 청탁금지법으로 통제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의원 본인이 소속된 의회나 해당 자치단체 집행·산하기관에 가족이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자신이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직자를 대상으로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후원·협찬 등 알선·청탁행위를 할 수 없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을 명시했다.

김형도 의원

이와 함께 의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의원 본인 또는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소속된 법인·단체나 4촌 이내 친족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의장 등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김형도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 기대에 부응하는 청렴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갖춰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겠다"며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확대된다

이계양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해 자녀 또는 유자녀에 지급하는 장학금 범위를 올해부터 시행 중인 충남 3대 무상교육 제도와 맞게끔 개선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지급대상 기준을 근속연수 3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장학금 회수·정지 조항과 지급 근거·방법, 의용소방대 직책 명칭 등을 정비했다.

이계양 의원

'안전 충남' 실현을 위한 안전교육·문화 진흥 조례안은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연도별 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자체평가, 관련 전문인력 양성,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계양 의원은 "그동안 심화돼 온 도시와 농어촌간 소방 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선 마을 자치소방 구현에 힘써 온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산림복지 혜택 제고 도대 마련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7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충청남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김명숙 의원(청양)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충남지역의 산림복지를 진흥하고 관련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해 도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행복 추구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누구나 평등하게 산림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사회적 여건으로 산림복지서비스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소외계층 지원과 관련 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자·지역 주민의 우선고용 등을 명시했다.

김명숙 의원

이밖에 산림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고 시책 수립·시행과 유공자 포상 등 도지사의 책무를 담았다.

김명숙 의원은 "산림복지소외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사업 추진에 따른 고용 안정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담았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충남의 다양하고 풍부한 산림자원을 모두가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여건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브랜드 향상·도민 여가 기회 확대 '박차'

행동하는 충남도의회
충남 문화관광정책 연구모임
(대표 여운영 의원)

제11대 충남도의회는 도민생활과 밀접한 정책발굴을 위해 전방위적 연구모임을 풀가동하고 있다. 도민과 함께 보폭과 눈높이를 맞춰가며 부족한 곳은 채워주고 넘치는 곳은 깎아내어 균형있는 사회로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도민 생활과 밀접된 정책발굴로 도민의 기와 흥을 북돋우며, 충남호의 안전한 항해를 위한 정책나침반이 될 충남도의회 12개의 연구모임을 차례대로 소개한다.〈끝〉

내포신도시 활성화 및 시·군 균형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회원들이 발족모임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남도의회가 도민 모두의 '풍요롭고 쾌적한 삶' 구현을 위해 문화·관광 정책을 발굴해 나아갈 연구모임을 진행 중이다.

충남의 문화·관광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충남 문화·관광정책 연구모임'은 여운영 의원(아산 2)의 제안으로 만들어졌으며 도의원과 도내 문화·관광 분야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됐다.

연구모임은 지난 2월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충남 문화·관광 정책 연구모임' 발족식을 시작으로 지난 4월 MICE 산업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9월 현장답사를 다녀왔다.

도내 MICE산업 육성 전략 수립에 대한 중요성과 지역브랜드 향상, 도민의 문화여가 기회 확대 등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모임 활동을 바탕으로 여운영 의원은 제315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대규모 국제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 조성과 더불어 굴뚝 없는 황금산업인 MICE 산업에 대한 필요성을 피력하였으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관심과 투자를 촉구하였다.

또한 연구모임은 오는 18일에 충남의 문화·관광 진흥을 위해 '문화서비스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세미나를 개최하고 연구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여 의원은 "민선 7기 도정운영 방향은 도민 누구도 소외 받지 않고, 양질의 삶을 누리는 충남을 구현하는 것"이라며, "충남의 문화·관광 진흥을 통해 도민의 풍요롭고 쾌적한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연구모임을 내실 있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더 행복한 소상공인을 위한 충남도 약속
- 사회보험료 1785억 지원, 고용불안 해소
-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6200억 확충
- 지역화폐 발행 지원, 골목상권 활성화 도모

충남도정

2019년 10월15일~10월24일 제857호

시각장애인용 보이스아이 QR코드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발행인** 문화체육부지사 **편집인** 공보관 **창간** 1990년 12월 15일 **발행주기** 매월 5, 15, 25일 발행 **주소**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전화** (041)635-2035 https://blog.naver.com/chungnamdojung

충남도 재정 건전성 높이고 도민 중심 운용 제시

1분과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충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제1분과는 지난 2일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소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8월 행자위 제안 연구과제인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결산분석 재정지표선정 및 활용방안' 중간보고회에 이어 연구용역을 최종 점검하고 내실있는 성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분과 안장헌 위원장(아산4)과 위원, 행자위 소속 위원,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수행기관 최종보고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연구용역을 맡은 강인재 재정성과연구원장은 이자리에서 "충남도 재정 분석 결과 최근 건설경기와 관광시장, 부동산시장 위축으로 취득세 등 일부 지방세 징수금액 감소와 체납액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세수) 세입의 어려움이 있다"며 "현실성 있는 재정확충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순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으로 본예산 대비 추경에 편성되는 비율은 2015년 25.28%에서 2019년 7.28%로,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며 "예·결산 과정에서 기능·성질별 분류 시 본예산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합산되는데 비해 최종예산과 결산에선 일반회계만 반영되는 문제가 있다"고 개선점을 제시했다.

최종보고 이후 1분과 위원들은 연구용역 마무리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김명숙 도의원(청양)은 "지방재정은 도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지방재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창원 위원은 "행정예산의 경우 용어가 어려워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도의회 의정활동의 격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본 연구용역을 기반삼아 의회가 기준을 가지고 도민을 위한 재정운용에 대한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정책에 반영시키는 의정활동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정책위 제1분과는 다음달 중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충남 농민기본소득 보장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성과물을 제시할 예정이다.

군사격장 소음피해 대책 마련하라는 의원들의 모습.

충남도의회는 지난 1일 있었던 제315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은 건의안 채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

충남 미래 일꾼들과 눈높이 대화

보령 동대초 학생들, 도의회 방문

이영우 의원(보령2)은 지난 1일 충남도의회를 방문한 보령시 동대초등학교 학생들과 눈높이 대화를 갖고 도의회의 활동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이날 의회를 찾은 동대초등학교 학생들은 4학년 187명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체험학습 일환으로 방문했다.

학생들은 충남도의회의 기능과 조직을 비롯한 현황을 시청각 자료와 설명을 통해 도의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를 갖는 시간을 가졌다.

이 의원은 먼저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국회의원과의 직무상의 차이를 소개하고, 충남도내 도의원 현황, 도의원의 고유한 역할, 대의민주주의 제도하의 도의회 고유 기능 등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설명하여 학생들의 시선을 모았다.

또한, 이 의원 자신이 도의원에 출마한 배경, 도의원으로서 갖는 의정에 관한 포부 등을 학생들에게 소개하면서 각자의 꿈과 이상을 위해 열심히 학업에 매진하여 대한민국과 충청남도의 큰 인물로 성장해 주길 당부했다.

학생들은 ▲도의원으로서 저 출산 고령화를 해결하기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가 ▲도의원으로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 ▲환경 문제 해결에 관한 예산은 전체 예산 중 얼마의 비중을 차지하는가 등 최근 시사에 관련한 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둔 질문을 했다.

발달장애인 복지증진 의정활동 '결실'

한국서부발전, 1000만원 지원

충남도의회 홍재표 부의장(태안1)의 발달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와 기업간 상생발전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한국서부발전(주)은 지난 2일 충남발달장애인부모회 태안지회를 방문해 발달장애인 복지를 위한 단체 기반시설 보강비 1천만원을 전달했다.

앞서 지난 7월 홍 부의장은 충남발달장애인부모회 태안지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한국서부발전과 함께 발달장

홍재표 의원

애인부모회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협의한 바 있다.

이날 지원금 전달식에 참석한 홍 부의장은 "지역사회와 동반성장을 위해 큰 금액을 지원해 준 한국서부발전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사회공헌 활동을 발굴하고 지역 내 소외받는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해 상생하는 지역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